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멸망해가는 지구촌을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오음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그날까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간구하며, 마지막 순간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주시기를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9월 12일 (토) 제 155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죽음의 땅에서 희망을 본다!

가디언 보도, 시리아 난민촌 사역으로 복음 확산, 무슬림에서 크리스천으로 변화

유럽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하는 난민 위기의 진원지 시리아는 5년째 내전에 시달리면서 인구의 절반 이상이 난민으로 전락한 급세기 최악의 인권 유린지가 됐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지구촌 최악의 인권 유린지가 돼버린 '죽음의 땅, 시리아'를 집중 조명해, 유럽이 몰려드는 난민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호

소한다(Syrian refugee crisis: why has it become so bad?: After years of refugees struggling to make their way out of danger, Europe is finally realizing the scale of the crisis, We look at why it has taken so long).

①뿌리 깊은 부족간 갈등 ②종파분쟁 ③국제사회 힘겨루기...3중 대립으로 더욱 심화

이제는 일상처럼 돼버린 참혹한 내전의 출발은 4년여 전 민주화를 요구하는 학생들의 낙서에서 비롯됐다.

중동을 뒤덮은 '아랍의 봄' 민주화 운동의 영향으로 지난 2011년 3월 남부의 작은 도시 다라에 한 학교 담에 혁명 구호를 적은 10대들이 체포돼 고문을 당한 것이 반정부 시위의 불을 댕겼다.

시리아 정부가 체포된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한 시위대에 발포해 사망자를 내고 시위 집압에 기갑사단까지 투입하는 등 과잉 대응으로 일관하자, 전국에서 수십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와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의 퇴진을 요구했다.

처음에는 평화시위에 나섰던 반정부 진영은 자유시리아군(FSA)을 조직하는 등 무기를 갖춘 무장 세력으로 발돋움해 본격적인 내전으로 돌입하게 된다.

다양한 갈래의 반정부 세력은 이듬해인 2012년 수도 다마스쿠스와 제2의 도시 알레포로 진격하면서 기세를 올렸으나, 필사적으로 저항한 알아사드 정부군도 반격에 나서 같은 해 말 알레포를 탈환하고 반군 거점을 장악해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내전 발발 2년 만인 2013년 6월까지 9만 명이 숨졌고, 불과 1년여 지난 2014년 8월에는 총 사망자 수가 19만1천명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고 유엔은 밝혔다. 현재까지 만 4년 반 동안 숨진 인원은 총 22만명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민간인으로 추정된다.

내전으로 민간인에 대한 살인, 고문, 성폭행 등 다양한 전쟁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



최대 난민 위기를 겪고 있는 유럽이 향후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도 긴장하고 있다. 사진은 시리아에서 탈출하는 난민들.

운데 정부군이 민간인 거주지역에까지 드림통에 폭약과 쇠붙이 등을 넣은 일명 '통폭탄'을 무차별 투하하면서 시리아는 아무도 안심하고 살 수 없는 지옥으로 전락했다.

특히 지난 2013년 8월 시리아 정부군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사린가스 공격으로 수백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은 국제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줬다.

게다가 혼란상을 틈타 세력을 키운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시리아 동부와 북부를 장악하고 참수 등의 잔인한 방식으로 민간인 수백 명을 처형함으로써 지역 내 공포를 더욱 가중시켰다.

이 때문에 고향에서 떠날 수 없게 된

시리아인 1천160여만 명이 집을 떠나 안전한 곳을 찾아 헤매는 난민 신세가 된 것으로 유엔난민기구(UNHCR)가 집계했다. 이는 내전 직전 시리아 전체 인구 2천300만 명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난민 중 760만 명이 여전히 시리아 곳곳을 떠도는 사이 이미 400만명 이상이 국경을 넘어 터키와 레바논, 요르단, 이집트 등 이웃나라로 떠났다.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국외 난민의 절반에 가까운 190만명이 터키에 머물고 있고 120만명이 레바논에, 65만명이 요르단에, 24만9천463명이 이라크에, 13만2천375명이 이집트에 각각 체류 중이다.

(3면으로 계속)

유럽 '난민 위기', 50년 만에 최악

미 언론, 독일 프랑스 EU 국가들의 현실과 주장 보도

한 아이의 익사 사진이 전 세계인의 눈물샘을 자극하고 있다. 2일 3살짜리 시리아 난민 아이가 익사 후 터키해변으로 밀려왔다. 아이의 이름은 '에이란 쿠르디'. 아이는 이날 오전 터키 휴양지 보드룸의 해변에서 발견됐다. 로이터 통신은 이 아이가 터키를 떠나 그리스로 향하다 익사한 5명의 아이들 중 하나라고 전했다. 터키의 도안 통신이 찍어 보도한 아이의 마지막 모습은 빨간 옷에 반바지차림으로 해변의 모래에 얼굴을 묻고 있는 상태였다.



해변에 버려진 아기

이 사진이 보도된 후 유럽은 시리아 난민을 구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인류 재앙의 작은 피해자'라고 표현했고, 미러지는 '견딜 수 없다'고 했다. 인디펜던트는 '누군가의 아이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Migrant Crisis Divides Europe: Germany and France press to end squabble over refugee flow as Hungarian leader says his country doesn't want 'a large number of Muslim people').

난민 문제에 관용적인 독일과 프랑스가 유럽을 정치적으로 분열시키는 새로운 쟁점인 난민 위기에 관한 언쟁을 끝내자고 나머지 유럽 국가들에 촉구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중동과 아프리카, 남아시아의 전쟁을 피해 EU로 밀려드는 난민을 분산 수용하는 '난민 쿼터제'를 도입하자고 요구했다.

이 소식은 헝가리 경찰이 난민 수백 명과 대치 중이고, 세 살배기 시리아 소년의 익사체가 터키 해변에서 발견된 사진이 유럽 전역 일간지 1면을 장식한 가운데 전해졌다. 이 사진은 유럽의 미온적인 난민 대응에 대한 분노를 일으켰다.

올랑드 대통령은 시리아 아동 사망 소식에 대해 "비극이 아닐 수 없다"면서 "유럽의 양심에 호소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3일 독일행을 희망하는 난민들은 부다페스트 캄페티 역으로 모여들었다. 헝가리 서유럽행 국제선 운영을 며칠째 중단한 가운데, 많은 난민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노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부다페스트를 출발한 기차가 2편 있긴 했다. 그러나 기차는 난민들의 바람대로 국경을 건너지 않고 비츠케 역에 정차했다. 비츠케는 대규모 난민촌이 있는 곳이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ABHE, ATS, TRACS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비정지인들 급부상...미국인 불만 상징"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4면
하나님의 구원계획
라홍채 목사

16면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엄예선 박사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2016년도 목사 학력 및 고시 공고

The General Assembly of Korean-American Presbyterian Church

2016 Pastoral Ordination Candidacy Qualification and Examination Announcement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응시 자격 (Candidacy Qualification)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Div 학위를 졸업 하였거나 2016년 6월 이전에 졸업 예정 인자로서 개혁주의 신앙이 투철한 무종교인으로서는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2. 고시 일자 및 장소 (Examination Date and Place)

- 고시 일자: 2016년 5월 13(금) - 16(일)
- 고시 장소: Philadelphia, USA

3. 고시 과목 (Examination Subjects)

-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이상4과목)
-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4편)

제출고시 내용

- 구약 주해 - 말라기 4:1-6
- 신약 주해 - 고린도전서 2:1-5
- 논문 제목 -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와 교회의 책임에 대하여 논하라.
- 설교 본문 - 신약: 로마서 1:18-32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 필기고사 당일에 본인이 선택한 본문으로 중심으로 설교 설기교사를 처음.
-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며,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에게 이메일 할 것.
 - Letter Size(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글자를 사용하며, 줄 간격은 180% 간격으로 (영문12호 Double Space) 작성할 것.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하며, 설교 원고는 30매 분량의 원고 (10pages 이내).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른 것이며 인용구는 각 주를 사용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주제 이름을 파일 이름으로 사용 할 것.

3) 면접 고시

4. 응시 서류 (Accompanying Documents)

-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16년 6월 이전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증 1부.
-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 이력서(자세한 신력을 기재해야 함) 1부
- 명함 2장
- 고시료: \$150.00 (Pay to the order of - The New Life Presbyterian Church of NY)

5. 서류 제출 요령 (Instructions for Documents and Written Assignments Submission)

-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16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16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합격자 발표는 40회 총회기간(5월17일-20일) 중에 합격증서 수여함.

6. 참고 사항 (Miscellaneous Information)

-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3일-16일 총회고시장소)중에 사용할 속소를 예약 할 것.
- 고시당일 Notebook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자를 것.
 -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7. 응시 서류 및 제출 과목 원고 제출처 (Submission Address)

고시부 서기: 허윤준 목사(Rev. Yun Joon Hur) / Email: jameshur63@hotmail.com
NY Cell: (718)637-1470

8. 기타 문의 (Contact Persons for Information)

-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201)875-8212, hyuninkim@hotmail.com
-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718)637-1470, jameshur63@hotmail.com
- 고시부 회계: 김태업목사 (339)223-2763, daenaree@yahoo.com

총회장: 김영수목사

서기: 조용철목사

고시부 부장: 김현인목사

고시부 서기: 허윤준목사



시론

악은 결코 선을 이길 수 없다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하나님께서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고통도 아픔도 죽음마저도 없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충만한 세상이었습니다. 사탄이 천국에서 쫓겨나고 인간이 사는 세상에 들어오면서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악한 유혹에 넘어지고 맙니다. 낙원에서 축출당한 인간들은 세상에서 온갖 죄악에 시달리며 고통 속에 살다가 죽어가는 삶이 되풀이 되는 비참한 존재로 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셔서 죄악 속에서 신음하는 피조물

인간을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 선하신 계획에 따라 죄악 속에서 죽어가는 인간들을 영원히 구원하시는 역사를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The Redemptive History of God)라고 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악의 종노릇을 하며 인간들을 괴롭히고 죽였던 수많은 사탄의 추종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종교의 가면을 쓰고 무려 1천여년 동안 탄압하며 백성들을 암흑과 같은 시대 속에 가두어 놓기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는 히틀러라는 인물이 유럽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잡아 강제 수용소에 가두고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고문을 하다가 죽이면서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고 가기도 했습니다. 우리 조국 한국도 일본 군국주의의 망령 때문에 36년간이나 착취와 수탈을 당하며, 조선의 딸들을 소위 정신대라는 말로 전쟁터의 성노예로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막스와 레닌의 유물론과 계급투쟁이론에서 시작된 극단적 사회주의인 공산주의는 소련과 중국, 동유럽과 중앙아시아의 위성국가들, 쿠바와 북한과 같은 극단적인 교조주의적 공산주의 패권 국가들을 연이어 세워 가며 수많은 인명을 죽이고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70여년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이제 극단적 공산주의 국가는 오직 지구상에 소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북한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열린 항일 승전 70주년 열병식을 보면서 북한의 고립된 위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 같아 김정은 정권과 공산당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는 10여년전에 C국에 머물고 있을 때, 머지않아 북한 땅으로 재파송되는 북한 출신 선교사들을 만나서 북음으로 재무장시키는 훈련을 하고 정착 선교비를 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후에 그 선교사는 발각돼서 처형을 당했다고 들었지만, 그 선교사로부터 북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이 더 많은 지하 가정교회를 만들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신앙의 인물들의 삶을 보아도 명백합니다. 욥을 찾아가면 사탄은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고 고통을 주며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욥은 물론 연약한 인간이기에 절규하며 두려워 떨기도 합니다. 혼란됩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그를 축복합니다. 악은 다윗에게 찾아가 가장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 최전선으로 몰고 가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하며 간음의 죄를 짓게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는 천상의 시들을 남깁니다. 악은 모세의 마음속에 들어가 이스라엘 노예들을 혹사하는 이집트 관원을 살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데려가 40년을 목자로 연단시킵니다. 모세는 칼을 쓰는 군인이 아니라 양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목자로 바로 앞에 나아가 출애굽의 위업을 달성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증거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도저히 꺾을 수 없을 것처럼 여겨졌던 악의 세력은 다 소멸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폭풍우가 드세고 어두운 밤이 깊어도 태양이 떠오르고 아침이 되면서 평온이 찾아오듯이, 악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악은 물러갑니다. 선은 반드시 이깁니다. 세상에선 악이 계속 이기고 있는 것같이 보여도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곳은 영원한 지옥뿐입니다. 하나님은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 선하심을 믿고 악에게 지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정치인들 급부상...미국인 불만 상징”

뉴스위크,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위원 공화당 예비 경선주자 분석 보도

미국 공화당에는 올해가 '비정치인'의 해다. 내년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해 경선을 벌이는 공화당 예비후보 중 3명(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 칼리 피오리나)은 선출 공직의 경험이 없는데도 현재 놀라울 정도로 잘나가고 있다. 아직 시기는 이르지만 최근의 여론조사는 그런 추세를 확연히 보여준다. 그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화당 경선주자의 화려한 경력을 감안하면 더 놀라운 일이다.

전직 주지사 5명(플로리다, 뉴욕, 텍사스, 버지니아, 아칸소), 재임에 성공한 현 주지사 4명(오하이오, 위스콘신, 뉴저지, 루이지애나), 잘 알려진 상원의원 4명, 2012년 공화당 경선에서 2위를 차지한 전 상원의원 등 호화 캐스트지만 지지율은 트럼프, 카슨, 피오리나 후보보다 훨씬 뒤진다.

미국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싱크 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윌리엄 A. 갤스턴은 한마디로 보통 미국인들의 불만 즉 내년 대선후보 지명을 위한 경선주자 중 공직 경험 없는 3명이 선두 달려가는 기현상을 차분하게 분석해준다. 즉 정부, 정치인 향한 불만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한다(How to Explain this Summer of Discontent).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최근 발표된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24%는 공화, 민주당에 반감을 갖는다. 그 비율은 10년 전의 4배다. 당연히 변화의 대부분은 무소속파의 급속한 증가를 반영한다. 무소속파의 36%는 양당을 부정적으로 본다. 민주당원의 양당에 대한 반감은 9%로 거의 변화가 없다. 그러나 공화당원의 양당에 대한 반감은 22%로 늘었다(도표 galston_surveys_026).



왼쪽부터 칼리 피오리나,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

도널드 트럼프, 벤 카슨, 칼리 피오리나...기존 정치인보다 지지율 높아 공직경험-비경험 주자 간 “차별화 전략” 이 예비경선 주요 관전 포인트

요즘 같은 양극화 시대엔 공화당원 10명 중 9명과 공화당으로 기우는 무소속파의 10명 중 8명 이상이 민주당을 혐오한다는 사실은 전혀 놀랍지 않다. 그러나 공화당원의 27%와 공화당 성향의 무소속파 중 50%가 공화당을 싫어한다는 사실은 상당히 의외다.

올해 공화당 경선에서 비정치인 후보 3명은 장점과 매력에 무엇이든 공화당원과 공화당 성향의 유권자가 소속당과 지도자에게 갖는 불만을 표현하는 상징이기도 하다. 그들이 전·현직 선출 공직자를 쫓아내는 증거는 없다.

20세기 들어 미국 공화당에선 그런 일이 2번 있었다(1940년 웬델 윌키와 1952년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그러나 궁극적으로 공화당원이 공직 경험이 없는 후보를 2016년 대선 후보로 선택할 것이라고 믿기는 여전히 어렵다.

그렇다고 그런 후보가 전당대회 전까지 경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또 만약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 대선후보로 지명되지 못하면 그가 무소속 후보로 나서서 불만에 찬 공화당원을 대표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은 결코 아니다. 그럴 경우 공화당 대선후보는

Recent opinion surveys on Republican presidential candidates				
	Trump	Carson	Fiorina	Total non-politicians
Iowa	22	14	7	43
New Hampshire	35	6	10	51
South Carolina	30	15	6	51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미국인들의 불만을 인식한 듯이, 자신을 느리지만 성실한 '거북이'라 칭한 공화당 대권주자 쟁 부시가 거친 입 '토끼'에게 일격을 날렸다.

지난 수 주 동안 도널드 트럼프의 막말을 참아왔지만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는 듯 1일 트럼프를 공격하는 인터넷 동영상 공개한 것.

동영상에 사용된 인터뷰는 수년 전 트럼프가 "낙태를 적극 찬성한다"고 말하고 부유층에 대한 증세를 제안한 것으로 그의 2016년 대선 정강과는 일치하지 않는다. 당시 트럼프는 자신이 "민주당과 더 잘 맞는 것 같다"며 지금은 민주당 유력 대선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치하하기도 했다.

같은 날 부시는 마이애미의 한 학교를 방문해서, 그리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영어와 스페인어로) 트럼프는 "보수가 아니

다"며 정체성을 문제 삼았다.

이처럼 트럼프를 정면 공격하기로 한 부시의 결정에는 위험도 따른다.

트럼프는 같은 날 트위터에 "실패한 후보의 무력한 반격 시도"라고 일축하며 자신을 공격한 후보들은 모두 지지도가 떨어진다 고 강조했다.

치활동위원회) '라이트 투 라이즈'는 최근 가장 먼저 경선이 진행될 아이오와 주와 뉴햄프셔 주 유권자들에게 주지사로서 그의 "보수파다운 실적"을 강조하는 수만 장의 홍보용 우편물을 발송했다.

라이트 투 라이즈 최고전략가는 트럼프가 "자기 자신 외에는 아무도 죽이지 못하는 '좀비 후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부시가 불법 이민 문제에 소극적이고 부유층 특별이익 집단의 눈치를 살핀다고 공격하곤 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유원정

<p>·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p>	<p>·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M.Div 학위과정에 입학하시는 선교사님들께
50% 특별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

죽음의 땅에서 희망을 본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이들 중 겨우 2.6%(1만4천410명)만이 국외에서 재정착한 상태라고 UNHCR은 밝혔다.
쏟아지는 난민들을 감당하지 못한 주변국이 점차 국경을 걸어 잠그자, 갈수록 많은 수의 시리아인들이 더 나은 삶을 찾아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향한 것이 오늘의 유럽 난민위기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이다.
사태가 심각해지는데도 내전이 진정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은 시리아의 뿌리 깊은 부족 간 갈등과 종파 분쟁, 국제사회의 힘겨루기라는 3종의 대립이 서로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지난 1971년 쿠데타로 정권을 차지한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부터 아들인 바샤르 알아사드 현 대통령까지 40년 넘게 집권한 현 지배층은 시리아의 분과인 알라위파로 시리아 전체 인구의 13%에 불과한 소수 종파다.
이런 상황에서 인구의 4분의 3에 가까운 수니파(73%)가 내전 발발 후 대부분 반군 편에 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여기에 고유성이 강한 동부의 부족들이 '다라 사테'를 계기로 반정부 투쟁에 가담함으로써 여

과 부족이 복잡하게 얽힌 내전 양상으로 발전하게 됐다.
또 주변 수니파와 시아파 국가들의 적극 개입으로 내전은 지역 차원의 종파 전쟁으로 변했다.
수니파의 맹주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터키, 요르단 등이 반정부군을 지원한 반면, 시아파를 이끄는 이란과 레바논 헤즈볼라계 정부군을 도와 반군 진압에 앞장서고 있다.
이에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경계하는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들이 '반 아사드' 진영에 가세하자, 러시아가 이란과 함께 정부군을 도우면서 미국과 러시아의 '신냉전' 양상으로까지 확대될 기미를 보인다.
이달 초 러시아가 시리아 정부군을 돕기 위한 본격적인 군사 개입에 나섰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는 가운데 미국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나선 것이 그 근거다.
게다가 반정부 세력의 일부가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조직으로 분화하면서 내전의 성격이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서방의 지원을 받는 시리아혁명전선 등 온건한 세속주의 반군 세력의 영향력이 점차 약해지고, IS와 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적인 알누스라 전선 등의 극단주의 세력이 힘을 얻으면서 미국

과 유럽에서는 무작정 알아사드 정권을 공격하기도 어려워진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다.
시리아에서 지금도 매일 수천 명의 난민이 새로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과거 30년에 걸친 전쟁의 후유증과 IS의 세력 확장으로 이라크 또한 300만 명의 난민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돼 중동 발 난민위기는 당분간 지구촌의 최대 난제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그때도 한 가지 희망은 바로 시리아 난민들이 물려 사는 난민촌이다. 다시 말해서, 내전 속에 복음으로 회복될 시리아가 그려진다. 시리아가 비록 지금은 내전으로 전체 국민의 절반 가까운 숫자가 국내의 난민이 돼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루어 가신다.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난민으로 흩어진 이들은 곳곳에 세워진 난민캠프에서, 자리가 턱없이 모자라 대부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캠프 바깥에서 허름한 텐트를 세우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전쟁의 횡포였던 기억이 트라우마가 돼 정신질환을 앓는 이들, 큰 충격에 폭력적으로 변해버린 아이들, 눈물조차 메말라 버린 채 절망과 고통 속에 요르단, 레바논, 영국 등에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이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던 그들에게 하나님만을 찾게 만들고 있다.

유럽 '난민 위기', 50년 만에 최악

(1면에서 계속)
경찰이 난민들을 비츠케 역에 하차시키려고 하는 과정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경찰은 난민 500여 명이 열차 안에 남아 있으려고 완강히 버텼다고 전했다.
올 여름 난민 수십 만 명이 유럽으로 유입되면서, EU 회원국들이 빈부동서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아직도 재정위기의 여파에서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데다가 우크라이나 내전으로 골치를 앓고 있는 EU는 난민 대란이라는 세 번째 난제에 직면했다.
윌리엄 스윙 국제이주기구(IOM) 사무총장은 "난민은 끊임없이 유입될 것"이라면서 "중단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처럼 복잡한 인도주의적 재난을 일찍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독일과 프랑스는 적정 숫자의 난민을 수용하지 않으려는 EU 회원국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 힘겨운 싸움을 해야만 한다.
EU 최대 경제국인 독일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탈출한 난민들을 보호하겠다고 두 팔을 벌렸지만, 다른 EU 회원국들도 함께 짐을 나눠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른바 '난민트루트'에서 멀리 떨어진 영국과 스페인은 소수의 난민만 받아들일 뿐, 더는 수용하기를 원치 않는다. 서유럽에 비해 난민을 수용한 경험이 부족한 헝가리와 폴란드가 난민 수용을 가장 완고하게 반대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유럽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시리아 난민이 동유럽을 통해 독일로 향하도록 부추

겼다며 독일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며칠 사이에 독일행을 희망하는 난민 수천 명이 부다페스트 기차역에 운집했다. 헝가리 당국은 철조망을 설치해 국경을 폐쇄하려고 시도했지만 난민들의 유입을 막지 못했다. 오르반 총리는 마틴 솔츠 유럽의회 의장과 회담을 가진 후 이렇게 말했다.
"난민 대란은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독일의 문제다.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에스토니아에 체류하기를 원하는 난민은 한 명도 없다. 모두 독일행을 희망한다."
오르반 총리는 유럽의 정체성은 기독교를 기반으로 두고 있는데 난민들 대부분은 무슬림이기 때문에, 헝가리 국경 수호를 최우선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에바 코파치 폴란드 총리는 '난민쿼터제'에 대해 난색을 표했다. 코파치 총리는 난민을 몇 명 수용할 것인가는 EU가 아니라 각국 정부가 정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EU 외교관들은 이민자 최소 16만 명을 EU 회원국들에 고르게 재분배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외부 국경 인근에 센터를 설립해 전쟁과 압제를 탈출한 난민은 받아들이고 경제적인 이유로 유럽으로 들어오려는 이민은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유럽 국가 정부들은 이민에 반대하는 정

치지 반발이 일어날까봐 또는 이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취하면 이민자가 급증할까봐 '난민 이슈'를 최대한 멀리하고 있다.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난민 문제가 있어 독일과 긴밀하게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애써왔지만 이민을 반대하는 정치 세력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운신의 폭이 넓지 않은 편이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대표는 "정부의 단일한 대처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올해 7월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독일인 가운데 57%가 적어도 이전 수준으로 계속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38%는 수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인들은 내전이나 박해의 희생자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경제이민에 대해서는 덜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켈 총리는 스위스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호를 원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 원칙은 모든 EU 회원국들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익사한 시리아 소년의 사진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렌치 총리는 "감동을 받았다"는 유럽 리더들은 많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선 이는 드물었다"고 꼬집었다.
300만 달러였는데 비해, 6월 15일부터 시작된 부시측 선거운동이 모금한 액수는 6월 말 기준 1,140만 달러였다.
결국 브루킹스 연구소를 비롯한 보수 진영 정치, 여론 전문 기관들은 당분간 공직 경험이 없는 경선 주자들과 공직 경험이 정치인 출신 경선 주자들 간의 "차별화 전략"이 향후 공화당 예비 경선의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난민문제 관용적인 독일/프랑스, 유럽 국가들에 '난민쿼터제' 제안 EU, 재정위기 여파와 우크라이나 내전에 이어 난민대란 난제 직면

"비정치인들 급부상...미국인 불만 상징"

(2면에서 계속)
트럼프는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지난해 부시가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해 "그들이 법을 어긴 건 사실이지만 그건 흉악 범죄가 아니라 (미국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는 동영상 올렸다.

"사람 따윈 있어라. 강하게 나갈 때다!"라는 코멘트와 함께였다.
부시 진영은 최근 직원 급여를 포함해 비용절감 노력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플로리다에선 대선 자금조달 컨설턴트 세 명이 사퇴했다.
부시는 올 초 사상 최고 액수의 선거자금을 모금한 후 새로운 고액 기부자들을 찾는 상황이다. 올 상반기 부시 슈퍼패키 모금한 금액은 1억

7월 말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독일인 가운데 57%가 적어도 이전 수준으로 계속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38%는 수용 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인들은 내전이나 박해의 희생자는 기꺼이 받아들이고, 경제이민에 대해서는 덜 관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켈 총리는 스위스 방문 중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호를 원하는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 원칙은 모든 EU 회원국들에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는 익사한 시리아 소년의 사진이 "우리의 가슴을 찢어놓고 우리의 영혼을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렌치 총리는 "감동을 받았다"는 유럽 리더들은 많지만, 실제로 행동에 나선 이는 드물었다"고 꼬집었다.

소망 칼럼

감사(感謝)함을 넘치게 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감사에 성숙한 자이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심에서 우리나라는 감사사가 있어야 하고 환경이 좋거나 나쁘거나 환경을 초월한 수준 높은 감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는 상대적이다. 그러나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절대적이어야 하며 인간관계에서의 감사는 받음으로가 아니라 줌으로써 기뻐하는 감사이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서 늘 감사 생활을 하라고 했다(골2:6-7). 그리스도의 전기 작가 아이제 윌튼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라고 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마리탱은 "감사는 예의의 가장 아름다운 형태이다"라고 했다.

"물은 담을 알고 있다"의 저자, 에모토 마사루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하였다. 같은 물이 담긴 두 그릇에 "감사, 사랑, 고맙습니다"와 "망할 놈"이라고 쓴 종이를 각각 붙여 놓고 하루밤 두고 열린 후 다음 날 전자 현미경으로 물의 결정체를 비교해 보았다. "감사, 사랑,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붙인 물의 결정체는 매우 아름다운 반면, "망할 놈"이라는 문자를 붙인 물의 결정체는 형태가 이지러져 험상궂은 모양이 되어 있었다. 그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일본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등 몇 가지 언어로 보여주고 결정체 사진을 찍으면 어느 나라 말이건 한결같이 잘 정돈된 깨끗한 형태가 나타난다. 한편 "망할 놈" 등 사람을 저주하고 공격하는 말은 어느 나라 말이건 제멋대로 결정이 부서져 보기에도 처참하였다. 에모토 마사루는 물 결정에 관한 실험 이후에 또 다른 실험을 하였다. 이번에는 밥을 똑같은 두 유리병 속에 넣었다. 그런 다음 한 유리병에는 "감사하다"라는 글귀를 붙이고 다른 유리병에는 "망할 자식"이라는 글을 써서 붙여 놓았다. 그리고 날마다 초등학교생에게 그 글귀를 각각의 병에 대고 읽게 하였다. "감사하다"가 붙여 있는 유리병을 향해서는 감사하다고 말하고 "망할 자식"이 붙여 있는 병에게는 망할 자식이라고 말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한 달을 지속하고 보니 "감사하다"라는 말을 들은 밥은 발효가 되어 향기로운 누룩 냄새가 났다. 그러나 "망할 자식"이라는 말을 들은 밥은 부패하여 검은 색으로 변하였으며 악취를 풍겼다. 이 실험은 단지 물만이 이런 정보 에너지를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미생물도 외부 정보의 영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미생물이 그러하다면 다른 세포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무수히 많은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 인간의 경우, 이들 각각의 세포가 외부 정보 에너지에 이와 같이 반응한다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로 건강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마이스터 에크하르트(Meister Eckhart)는 감사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평생 동안 기도를 단 한 번 밖에 드리지 않았는데 그 기도가 '감사합니다'였다면 당신의 삶은 그걸로 충분하다" 감사라 기적을 창조하고 더 큰 감사를 낳는다. 감사하면 변화가 일어난다. 우리의 영혼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행통할 때 감사하면 행통이 연장된다. 성경에 보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빌4:6), 범사에 감사하기 바란다(살전5:18)고 했다.

감사는 마음의 음악이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을 벌하는 법을 따로 세우지 않은 까닭은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벌하시기 때문이다(라이피콥스, 헬라 입법자).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웅홀한 마음을 버리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언제나 모든 경우,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함이 넘치게 되기 바란다. 성도들은 감사에 인식하지 말고 찬송에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 | | | |
|---------------------|----------------------|----------------------|
|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 아멘넷(뉴욕, 미국) |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
|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 유럽크리스찬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
|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엔젤레스, 미국) |
|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엔젤레스, 미국) |
|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엔젤레스, 미국) |

<p>추천도서</p> <p>입양가족, 홍성사</p>	<p>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p>	<p>일리스터 맥그래스, 성서유니온</p>
<p>김미진 저, 규장</p>	<p>데이비스 케넌 저, 국제제자훈련원</p>	<p>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p>

추천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빛과 소금으로...



엄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사랑의 손길을

전쟁과 테러가 난무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쟁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각종 총기 사고로 무고한 생명이 죽어가는 보도는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합니다. 지난 2일 시리아 꼬마 시신이 파도에 휩쓸려 해안가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터키 도안 통신에 의해 전 세계에 보도 되었습니다. 테러와 전쟁을 피해 더 나은 삶을 살기위

해 보트에 몸을 실었던 3살짜리 시리아 꼬마 시신의 모습이었습니다. AFP통신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 아이는 시리아 북부 코바니 출신인 에이란 쿠르디아라고 밝혔습니다. 에이란의 마지막 모습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파도에 휩쓸린 인도주의'라는 해시태그로 공유되면서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뭉클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일행은 두 대의 소형 보트에 23명이 나누어 타고 오다가 보트가 전복되어 12명이 숨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벌어진 IS이슬람 쿠르드족과의 잔혹한 전쟁을 벌여 가족과 함께 떠나온 에이란 쿠르디는 터키에서 소형보트에 몸을 싣고 그리스 코스섬을 향해 떠났다가 보트를 해변 인근 아크아라 지역에서 배가 뒤집혀 변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달 27일에는 오스트리아 고속도로 갓길 냉동트럭에서 71구의 시리아 난민들의 시신이 발견되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경찰이 밝힌 바에 의하면 국경 인근 고속도로에 서 주검으로 발견된 난민들은 냉동트럭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보이며 적어도 발견되기 24시간 전에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남성 59명, 여성 8명과 어린이 4명의 죽음이 확인됐으며 시리아 여행 문서도 발견됐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발칸반도를 통해 유럽으로 밀입국하는 난민들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중해에 이어 유럽의 육로와 해안이 난민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연일 보고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 기구에 의하면 유럽행을 시도하다 죽음이 이른 난민들의 수가 올해만 30만 명을 넘었으며 이 중 2500명 이상이 숨졌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올해 7월 말까지 통계에 의하면 독일이 망명 신청을 한 난민은 19만6000명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시리아 난민은 4만2000명(21.5%)입니다. 코소보(3만명) 알바니아(2만9000명) 세르비아(1만1000명) 마케도니아(5000명) 등 발칸 출신들과 그 다음을 이어 이라크와 아프간 출신으로 각 1만 명쯤 된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같이 난민이 늘어나는 원인은 전쟁과 내분으로 인해 무고한 평범한 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생존의 위기를 느낀 나머지 위험을 무릅쓰고 정든 고향을 떠나는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를 찾아 목숨을

건 그들의 모습은 안타깝고 애절하기 그지없습니다. 국제법상 난민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당할 공포에 처해 있거나 이로 인해 국적국 또는 상주국 밖에 있는 국민, 무국적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단 '평화에 대한 죄, 전쟁범죄 또는 인도에 대한 죄를 범한 자나 난민으로 입국이 허가되기 전에 영토국 밖에서 비정치적 범죄를 범한 자나 UN목적과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는 난민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밀려드는 난민들로 인해 유럽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난민을 환영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자국민 보호라는 명목으로 그들의 밀입국을 막기 위해 국경수비를 강화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이모저모로 유럽의 각 국가들의 고민은 날로 심하여가

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원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이슈가 아닌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들을 받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의 조국도 나라를 빼앗기고 방황하는 고통과 전쟁을 겪으며 모든 것을 잃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돕는 손길이 없었다면 나라 없는 난민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각처에 각 봉사단체와 선교단체 등을 통해 전 세계 곳곳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자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를 돕는 손길의 은혜라 여겨집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미국도 종교의 자유를 위해 찾아온 난민들을 반겨준 원주민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날 선진대국이 되지 않았는지 여겨집니다. 이제는 눈을 돌려 그들을 바라보고 따스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은 전쟁의 승리를 이끄는 일을 돕는 것보다도 평화를 찾아 해매는 순수한 난민들을 위해 손을 내밀어 주는 인도주의를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푸 / 른 / 초 / 장

장영춘 목사

(퀸즈장로교회 원로목사, 본지발행인)



본문은 애굽 땅과 사방에 계속되는 대 기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탁월한 기근 정책을 펴 굶주리는 백성을 구하는 동시에 애굽을 부강케 하고 왕권을 공고히 하며 새로운 조세 제도와 토지법을 확립한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요셉은 기근이 더욱 심해지자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본문은 성경 중에 돈이란 말이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부분으로 여섯 번이나 반복 사용되고 있습니다.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여찌 주 앞에서 죽으리까라 하고 사정하고 있습니다. 요셉 당시에는 일정하게 주조된 화폐가 없었으니 이 돈으로 대응되었습니다. "돈이 진하니이다"는 돈이 완전히 고갈된 상태를 말합니다. 기근을 당한 백성이 돈으로 곡식

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18, 19절)라고 말했습니다. 당시의 기근은 농지에 뿌릴 종자조차도 구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요셉은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드리니 온 땅이 바로의

돼지가 되려느냐?"고 묻는다면 "물론 나는 배부른 돼지가 되겠다"라고 답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흠모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성자가 아닙니다. 돈 많은 부자입니다. 신문의 사회면 기사를 보면 돈 때문에 살인하고 시기하고 윤희하고 폭행하고 고소하고 자살하는 내용들로 차 있습니다. 모두 돈을 맹목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사회의 부조리들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생들은 진리나 정의나 평화보다 아니 하나님보

19장에 나오는 부자청년은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영생의 길을 포기한 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이 세대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3.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어 들인 장본인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그 많은 돈을 다 거두어들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은 20개에 팔려온 무일푼의 종이었습니다. 그의 수중에는 돈 한 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가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땅을 지으신 하나님, 비를 내리시고 햇빛을 주시는 하나님, 생물을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경제와 상권을 장악하고 계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진정한 돈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는 철저한 사상의 정립이 필요합니다. 돈에 대한 자세에 따라 돈이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부호 록펠러 2세는 "나는 하나님의 창고를 맡은 청지기이며 이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쓰는 권리밖에 없다"라고 그의 금전관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게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돈을 잃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인이신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처럼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그런 자에게 돈을 맡기시며 그런 자로 하여금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돈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인생

(창세기 47장 13-26절)

1. 돈의 기능과 힘 돈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와 더불어 지속되어왔습니다. 고대는 물물교환의 수단으로 짐승의 가죽이나 농산물 등이 사용되다가 후에 금이나 은으로 대체되었으나 1930년대 대 공황 이후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주화나 지폐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제이론에 의하면 돈은 네 가지 기능을 가지는데 교환의 수단, 지불의 수단, 저장의 수단과 가치의 척도입니다. 본문 15절을 보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을 사먹었으나 이제 돈이 떨어지니 곡식을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가 고프고 죽게 되었습니다. 돈이 떨어진 백성들은 그 모든 짐승을 식물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가 다하고 새해가 되었는데도 기근은 계속되었습니다. 식물이 떨어진 그들은 다시 요셉에게 와서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 때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물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여찌 우리의 전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

소유가 되었습니다. 7년의 대 기근 속에서도 애굽이 자기 나라뿐 아니라 근동 지방 전역에서 몰려오는 사람들에게 식량공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탁월한 기근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현대는 돈이 만물의 척도가 된 금전만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권력도 돈 앞에는 무력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2. 돈을 사랑하는 인생 현대인들은 진리나 정의나 선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혹자는 현대인들에게 "당신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려느냐? 아니면 배부른

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지옥으로 달려갑니다. 돈을 벌기위하여 주일 성수를 포기하는 분은 없습니까? 돈을 모으기 위하여 십일조를 드리지 않는 분은 없습니까? 돈 때문에 신앙의 질개를 버리고 변칙을 돈을 벌려고 몸부림치는 분은 없습니까? 돈이 있으면 감사하고 돈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는 시대입니다. 돈 하나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상실한 시대인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가 38개인데 그중에 12개의 비유가 돈에 관한 교훈입니다. 마태복음

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를 축복하시어 그의 번사에 형통케 하셨습니다. 종이었던 그를 일약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막대한 돈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돈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의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받아 누리려는 것뿐입니다. 요셉이나 다윗과 같이 우리는 돈과 물질의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돈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지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5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5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 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oad, Kalamazoo, Michigan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 773-206-3809(Hyomyeong Rhiew) / hmrhiew@sbcglobal.net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부: 홍순백 / 서기:김정준 / 홍보담당:이상천

구독 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평 신 도 <input type="checkbox"/>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혼돈과 분열, 두려움의 열매를 맺게 할 수 있는 잘못된 견해를 분별하자

몇 주 전부터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계속 떠돌고 있는 미국 대출판사 중 하나인 하퍼콜린스 (Harper Collins)의 NIV 및 ESV 성경의 불확실성과 기독교 출판사에 대한 잘못된 견고의 글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들을 알려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지막 시대에 성도들을 혼돈 시키고 성경말씀의 권위를 실추시킬 수 있는 왜곡된 정보에 모든 크리스천들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눕니다.

FACT: 현재 카톡이나 페이스북에서 돌고 있는 카톡의 말들 중에는 사실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Harper Collins가 비기독교 출판사이기 때문에 사탄교 책들이나 친동성애책들을 출판(publish)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출판사들이 그런 사탄교 책과 친동성애책들을 하퍼콜린스와 함께 출판했다고 나돌고 있는 메시지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출판사들은 비록 하퍼콜린스 출판사 밑에 있어도 각각 부문(Division)이 따로 있어서 독립적으로 "출판권"과 "저작권"을 가지고 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판사"와 "저작권"의 차이 바로 알기

세계에서 가장 큰 출판사 중 하나인 HarperCollins Publishers LLC는 기독교출판사가 아니며, 1988년에 기독교 출판사인 Zondervan을 인수하였습니다. 또한, HarperCollins는 HarperCollins의 기독교 부문(Division)인 HarperCollins Chris-

어떻게 KJV에 있는 구절들이 NIV와 ESV에는 삭제되었는가?

지금 돌고 있는 카톡 내용에는 KJV 성경책에 나오는 단어들과 구절들이 NIV 성경과 ESV 성경책에는 생략된 것들이 있어서, NIV나 ESV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비록 늦게 발견되고 더 늦게 번역된 NIV와 ESV는 KJV보다 더 이른 4세기 원어헬라어를 번역한 성경책이 된 것이지요.

따라서 KJV 성경과 새로운 번역들의 차이가 1881년에 출판된 헬라어 신약 성경에서 옵니다. 이 신약 성경에 없는 단어나 절들은 새로운 번역에서 생략하고 여러 성경책 아래 footnote에

"일부 사본에는 이렇게 적혀있다..."라고 적히기도 하고요.

결론은 KJV도, NIV, ESV도 15세기나 4세기 성경에서 번역된 것이기에 어떤 헬라어와 원어에 가까운 성경을 사용했느냐에 따라서 footnote에 들어가기도 하고 아니면 온전히 번역만 되기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출판사와 성경번역본의 내용은 무관합니다

수많은 반기독교적인 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50여년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반기독교 가치관의 열매들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2015년 그리고 앞으로 몇년이나 더 그 열매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먹으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한순간, 하루 만에 온 것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하와를 유혹하던 때와 똑 같은 전략입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혼돈을 주고, 그다음에는 사람이 혼돈하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의심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하와가 교만해져 죄를 지은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혼돈과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의심이 생길 때,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착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어 살고 있는 일들이 주위에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도 그랬습니다. 1960년대에 자녀교육의 가장 큰 두개의 기둥인

하퍼콜린스의 NIV 및 ESV 성경의 불확실성 소문은 사실 무근 출판권과 저작권은 별개...출판사가 출판내용을 변경할 수 없어

tian Publishing 역시 인수하여 모든 출판(publishing)에 있어서 Head Quarter로서 주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록 기독교 출판사들이 자금부족으로 비기독교 출판사에 팔렸다고 해도, 각 부문(division)들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Zondervan도 기독교 부문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책은 사탄교나 친동성애 책을 만든 하퍼콜린스에서 조작하여 잘못 번역되었다 라는 식의 혼돈스런 내용이 나돌면서 성도님들을 매우 놀라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내용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하퍼콜린스는 출판사일 뿐 성경책내용을 법적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KJV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이 NIV & ESV 성경책에는 없을까요?

조사한 결과 여러 논쟁이 있지만 간단히 정리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KJV는 17세기 때 15세기 헬라어 신약성경인 Textus Receptus를 영국교회를 위해 영국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런, KJV 성경을 이미 출판한 후에 15세기보다 훨씬 더 이전의 "4세기 헬라어 신약성경"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인 1881년에 the New Testament in the Original Greek를 새롭게 출판하게 됩니다. 그이후로 새로운 번역들은 NIV와 ESV를 포함하여 The

모든 성경 번역들은 장단점이 있지만, 저희들의 조사 결론에 의하면 비기독교적이며 무종교 출판사인 HarperCollins 때문에 NIV나 ESV 성경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퍼콜린스 출판사는 무종교, 비기독교 출판사일 뿐 법적으로 성경책이든, 누군가 쓴 기독교서적들의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권한도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조사를 마치고

교묘하게 들어오는 "혼돈의 영"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성도들을 분열시킬 수 있으며, 무엇보다 성경말씀 번역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은 불필요한 두려움과 의심의 싸이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은 성경의 진위성과 권위까지 의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교회도 하나님도 떠나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예들은 유럽을 보면 알 수 있고, 가장 가깝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성경과 기도가 빠지면서 동시에 자유주의 신학이 더 퍼져나가게 되고, 미국사람들은 성경번역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갖기 시작하면서 교회와 성도들안에 혼돈과 분열이 시작되고, 많은 미국인들은 풀려지지 않는 번역의 의심으로 인해 하나님까지 불신하기 시작하고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까지 떠나버리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사탄의 전략은 기독교인들을 나누어지게 만들고,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의심하고 성경말씀까지 의심하게 만들어서, 성경의 권위를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영적으로 깨어 분별력을 잃고 있는 사이에 혼돈과 교묘한 미혹을 통해서 갈라 놓고 서로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무뚝基隆만한 것보다 더욱 더 네 마음을 지키라!" 잠언 4:23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마음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 749-0577 E-Mail: tslpc0316@gmail.com

Q: 구약에서는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여러 번 나오지만 신약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신약에서도 나오는지요? 그리고 요즘 부흥회나 외래강사 목사님이 와서 강단에 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합시다' 라고 하여 강사 목사님이 강단에서 '할렐루야' 하면 성도들은 '할렐루야 아멘' 하는데 그것이 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맞는지요? -토렌스에서 권 권사

A: 구약성경에서는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시편에 특히 많이 나옵니다. '할렐루야'라는 뜻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입니다.(praise ye Yahweh). 이는 구약의 야웨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할렐루야는 결국 야웨를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의 노래들 중에서 할렐루야가 끝에 나오는 시편은 104, 115, 116, 117편이고 처음에 나오는 시편은 111, 112편이고 처음과 끝에 나오는 시편은 106, 113, 135, 146편입니다. 유월절과 초막절에 부르는 할렐루야 시편으로는 104-109편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만 사용해야

다. 이집트에서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할렐루야는 113-118편입니다. 구약에서는 특히 시편에서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고 신약에서는 할렐루야가 잘 안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읽어보면 신약의 요한계시록 19장에 가면 '할렐루야'가 한 장에 4번이나 나오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하면서 3절에도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더니 4절에서 24장조와 네 생물이 아멘 할렐루야로 화답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서 다시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여기의 할렐루야는 승리의 할렐루야입니다. 악한 자와 음녀인 세상을 심판하고 성도들을 구원하시어 어린양의 혼인잔치를 할 때 사용하는 할렐루야 찬양입니다.

성도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부흥회나 외래 강사님이 오셔서 설교하시기 전, 강단에 나오시면 성도들이 할렐루야로 환영을 하는 것이 한국 교회의 통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따지고 보면 그렇게 성경적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할렐루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사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송축하는 찬송이요 환호입니다. 그래서 누가 언제부터 무슨 뜻으로 부흥강사나 외래 목사님을 소개하고 환영하며 할렐루야 하고 했는지는 모르나 이것은 어색하고 그 상황에 합당치 않다는 것을 저 자신도 다른 교회에서 강단에 설 때 여러 번 느꼈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할 때는 "좋은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종을 우리 교회 강단에 보내주셔서 은혜 받게 해주셨음을 감사하여 목사님을 보내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는 뜻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목적은 분명 그렇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성도들이 목사님을 향해 할렐루야 할 때 인간 사람에게 마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분위기가 느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꼭 이때 사용하여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우리 목회자들이 상당히 심사숙고하며 고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할렐루야는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데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을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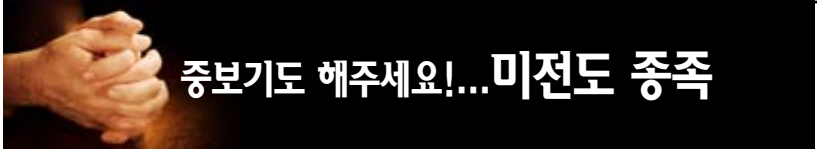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네팔의 동부 마가르(EASTERN MAGAR)



네팔은 인디아와 중국 사이의 히말라야 남쪽을 따라 위치한 작은 나라다. 이 나라는 다양한 언어들과 매우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약 110개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다

네팔의 기원은 불분명하다. 그들은 언어와 춤이 티베트 문화인들과 비슷해 티베트 후손이라고 믿어졌다. 약간의 마가르인들은 히말라야 언덕이 시작되는 평지에 살고 다른 이들은 마합라레크의 낮은 쪽 언덕을 차지하고 있다. 소수는 산의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다.

르 부족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삶의 모습

마가르인들은 자신의 땅을 갖고 있는 농부지만 대부분 수공업에 종사하고 있다. 어떤 이들은 광부, 대장장이, 또는 바구니 짜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순진하고 열심히 일하며 정직하고 자기를 의지하며 자급자족한다. 또한 유쾌하고 노래와 춤을 즐기며 여러 가지 부족의 게임과 여러 종류의 춤을 갖고 있다.

옷과 "드호티스"라고 불리는 옷을 입는다. 그들은 종종 귀 중간부분에 장식품 같은 꽃인 "폴리스"와 유리구슬과 은으로 된 인디안 동전으로 만든 목걸이로 자신을 꾸민다. 약간의 서양식 옷도 점차적으로 천천히 보편화되고 있다.

마가르의 결혼은 독특한 관습으로 진행된다. 신랑의 매형은 신부의 가족에게 가서 "신부값"으로 돈과 술을 주고, 이것이 받아들여지면 나머지를 지불한다. 어머니 쪽 첫째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 관례다.

마가르의 친척관계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외삼촌과 외사촌 사이의 강한 유대다. 그들은 서로를 존경하며 사촌이 결혼할 준비가 됐을 때 신부는 그의 외삼촌의 딸들 중에서 선택된다.

"삶은 여러 의식들의 순환이다"는 마가르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특별한 탄생식이 아이가 태어난 지 11일에 이루어진다.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주고 처음으로 씻긴다. "제스타 푸어니마"라고 알려진 한 축제는 만월인 5월이나 6월에 볼 수 있다. 식이 거행되는 동안 막 수확한 곡식이 신들에게 바쳐진다.

신앙

이스틴 마가르의 90%가 민족특유의 종교를, 10%는 힌두교를 믿는다. 다른 마가르 집단처럼 힌두교들은 이스틴 마가르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많은 사람들이 세 명의 주요 힌두신인 "브라마(우주의 창조자)", "비쉬누(세상의 방어자이며 보호자)", 그리고 "쉬바(파괴

자)를 다른 신들의 주인으로 경배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성경의 부분들이 이미 이스틴 마가르어로 번역됐다. 그러나 네팔 정부는 어떤 형태의 전도도 맹렬하게 반대한다. 자신의 믿음을 나누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벌은 무자비하다. 많은 믿는 자들이 감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왔다. 아마도 이것이 이스틴 마가르에 성도라고 알려진 사람들이 단지 103명뿐인 이유일 것이다

네팔민족은 오랫동안 대부분의 세계에 잊혀지고 사라져왔다. 오직 중보기도만이 이 부족들의 강한 진을 무너뜨리고 그들이 영광스런 복음의 빛을 볼 수 있게 할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기도방' 보여주는 영화가...? 예상 갭 흥행

최근 미국 극장가에 작은 기독교영화 돌풍이 불고 있다. 기도의 힘으로 가족이 행복을 되찾는다는 다소 진부한 내용의 영화 '워 룸(War Room)' 때문이다. 미국 언론은 적은 예산의 이 기독교 영화의 흥행을 주목했다.



1월 미국 언론에 따르면 워 룸은 8월 마지막 주 1만 140만 달러 수입을 올리며 2위로 데뷔했다. 개봉 스크린수도 1100여개로 많지 않다.

워 룸은 역대 북미 기독교 영화 중 개봉 성적 7위 영광도 안았다. 그러나 워 룸은 적은 예산으로 잘 알려지지 않은 배우를 기용한 영화다. 그래서 이번 흥행이 의미가 더 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다. 워 룸은 현재 흥행 순위 10위 내 가장 적은 예산인 350만 달러 제작비를 들여 만들었다.

미국 언론들은 "하나님을 향한 찬가가 승리를 이끌 어냈다"고 평가했다.

워 룸은 침례교회의 담임목사인 알렉스 켄드릭 감독의 작품이다. 작가는 동성 스테픈 켄드릭이 맡았다. 믿음의 두 형제는 그동안 '믿음의 승부(2007)' '파이어프루프-사랑의 도전(2008)' '용기와 구원(2011)' 등 저예산 종교 영화를 만들어왔다. 워 룸은 뜨겁게 기도하는 방을 뜻한다.

'희년기간 낙태 용서' 교황 '파격' 교서 논란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12월 8일부터 시작되는 '자비의 희년' 기간에 한해 사제들이 낙태 여성을 용서할 수 있게 허용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1일 일제히 보도했다. 하지만 낙태는 이미 생겨난 생명을 없애는 일인만큼 교황의 이번 조치가 자칫 미래의 잠재적인 낙태에 대한 정당성을 키울 것이라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교황은 이날 발표한 교서에서 "낙태를 한 여성이 진

심어린 속죄와 함께 용서를 구한다면 모든 사제들이 이 낙태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낙태라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한 상처를 가슴에 지니고 있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며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낙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실존적이고 도덕적인 비극"이라고 표현했다.

기존에 낙태죄는 교구의 최고 고해 신부만이 용서할 수 있는데, 이번 희년 기간에는 모든 사제에게 낙태 여성에 대한 용서 권한이 주어진다. 이번 자비의 희년은 올해 12월 8일부터 2016년 11월 20일까지다.

교황의 조치는 파격 그 자체로 받아들여진다. 가톨릭에서는 '성(聖) 가정'을 중요시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온전한 가톨릭 신앙생활의 핵심으로 간주해왔다. 때문에 지금까지도 성 가정을 꾸릴 수 없는 경우 사제가 신자들에게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한국 가톨릭계에서도 혼배성사(결혼미사)를 하기 전에 사제가 신자들에게 2세를 낳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예비신랑과 예비신부에게 사전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다. 그런 전통을 유지해왔기에 가톨릭에서 낙태는 중죄로 간주돼왔으며, 특히 낙태를 한 여성이나 낙태 시술자는 파문 대상이 돼왔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포샵' 세살배기 난민 해피엔딩

난파된 난민선에서 해안으로 떠밀려 시신으로 발견된 시리아 세 살배기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과 그림이 세계 네티즌을 또 한번 울리고 있다. 파도에 휩쓸린 아이는 마치 잠이 든 것처럼 보였다. 네티즌들은 이 비극적인 죽음을 믿을 수 없다는 듯 그 순간을 행복한 결말로 바꿨다.



4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2일 터키의 한 해안에서 발견된 에일란 쿠르디의 발견 당시 모습을 합성한 사진과 그림이 올라왔다. 세계인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합성한 사진과 그림은 SNS로 빨리 퍼지고 있다.

쿠르디는 엎드려 자는 모습으로 발견됐다. 그래서인지 아이가 죽지 않고 잠든 것 같이 합성한 사진과 그림이 많았다.

아이는 많은 네티즌 손길로 은은한 조명이 켜진 어느 방 침대에 누워 자는 모습으로 바뀌었다. 쿠르디가 쓸쓸하지 않게 많은 아이가 파도를 이불 삼아 해안에서 자는 것을 그린 그림도 있었다. 어떤 이는 쿠르디가 천사의 날개를 달고 누워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한 네티즌은 쿠르디가 바닷가에서 모래놀이하는 모습을 그렸다. 아이는 자신이 누워있는 형상을 만들었다.

같은 날 세상을 떠난 엄마가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쿠르디를 안아주려는 모습을 원본 사진에 합성한 사진도 네티즌들 울렸다. 쿠르디가 작은 종이배를 잡고 바닷속을 유영하는 모습,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 등도 있었다.

쿠르디의 가족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IS(이슬람국가)의 위협을 피해 IS가 점령한 시리아 북부에서 육로로 터키로 탈출한 뒤 지중해를 건너 그리스로 가려다 배가 뒤집히는 사고를 당했다. 엄마와 두 살 위 형도 죽었다. 아빠는 간신히 구조됐다.

동성결혼 집행금 지급 거부 법원서기, 결국 법정구속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도 동성 커플에게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미 캔터키주의 법원 서기가 결국 법정 구속됐다.



캔터키 주 연방지법의 데이비드 버닝 판사는 3일 "법원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온 로안 카운티의 법원 서기 킴 데이비스(49·여)에 대해 연방법 위반 및 법정 모독 등의 이유로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데이비스는 버닝 판사의 명령 직후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버닝 판사는 데이비스가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하면 석방된다는 단서를 달았다.

데이비스의 변호인단은 법정구속 대신 벌금형을 내려야 한다고 맞섰으나, 버닝 판사는 벌금형으로는 데이비스의 의지를 바꿀 수 없다고 판단해 구속한다고 설명했다.

데이비스는 그동안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이라며 동성 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왔고 이날 버닝 판사 앞에서 "내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동성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라는 명령에 따를 수 없다"고 버텼다.

데이비스는 이날 20분간의 법정 진술에서 자신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과정을 설명하면서 "여러분은 당신의 가슴과 영혼에 있는 어떤 무엇과 자신을 분리할 수는 없다"며 결혼증명서 발급 거부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결정임을 강조했다. 이날 법정 밖에서는 동성결혼 찬반 양측에서 각각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데이비스는 지난 6월 말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이 나온 후에도 동성커플에 대한 결혼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사회적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약 4년 전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데이비스는 오랫동안 법원서기로 재직하던 자신의 어머니 밑에서 부서기로 일해 오다 지난해 11월 선거에 출마해 법원서기에 당선됐다. 다만 데이비스와 같은 법원에서 일하는 다른 5명의 법원 서기는 4일부터 동성커플에게 결혼 증명서를 발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성결혼 집행금 거부한 오리건 판사 조사

오리건주 카운티 판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해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매리언 카운티 법원의 벤스 데이 판사는 동성결혼 집례를 거부한 혐의로 오리건 주정부 윤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으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변호에 필요한 자금을 모을 수 있는 허가를 받고 있다.



데이 판사의 대변인인 패트릭 코튼은 "데이 판사는 2011년 법관으로 임용된 후 단 한 차례도 동성결혼을 집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데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오리건주에서 동성결혼이 전면적으로 인정된 후 결혼식 집례 요청이 동성 커플로부터 들어오면 다른 판사에게 인내하도록 부하 직원들에게 지시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지난해 가을부터 동성결혼이든 이성결혼이든 결혼식 집례를 새로 맡는 것을 거부해왔다. 올해 3월 이성간 결혼식 한 건을 집례하긴 했지만 이는 오래 전에 잡혀 있어 불가피하게 집례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데이 판사는 공화당 오리건주 위원장을 지냈으며, 2011년에 민주당 소속이던 존 키츠버러 당시 주지사에 의해 임명됐다.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컨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기업도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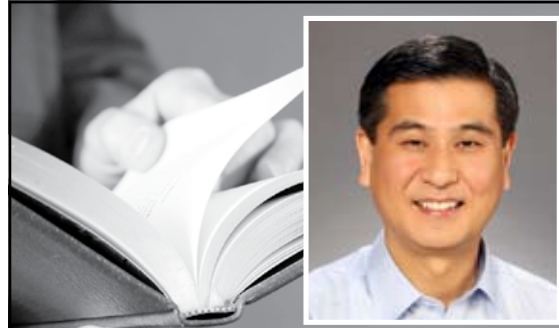
목적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기!

안중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씩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한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순교의 피, 영적 거름이 되어 (3)

기독교가 지닌 힘에 대해 생각해 보자. 미국에 소재한 해외선교연구원센터에서 발표한 2013년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 인구가운데 기독교인이 33%로 가장 많다. 이 숫자는 구교와 신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파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반해 이슬람교는 22.9%, 힌두교는 13.8%, 그리고 불교는 7.1%이다. 기독교는 범세계적이다. 특정 지역이나 인종에 치중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세계의 최대 종교인 기독교가 현재 세상을 향해 버금가는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교세가 곧 교회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질문: 로마 황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으며 더욱 강한 생명력을 지녔던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1) 교회 역사를 보면...

■ 핍박 - 교회의 힘에 대한 반증

오순절에 출발한 초대 교회는 외적으로 매우 초라했다. 소수가 모였다. 그들이 전하던 복음의 주인공이었던 예수가 대중들에게는 '비호감의 전형'이었다. 입에 조차 담기도 거북스러운 '십자가'에서 죽은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삼으라는 메시지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었다. 사도들이 떠났던 초대교회는 이래저래 힘든 상황이었다. 이에 반하여 세계를 제패한 로마제국은 막강한 힘을 지닌 강대국이었다. 로마는 군사력 못지않은 정치력을 지녀야 했다.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통치해야 하는 부담

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기본적으로 관용이란 울타리 안에 시민들을 가두어놓는 정책을 펼쳤다. 로마로부터 억압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 민심이 흥흥해지고 작고 커다란 불기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의 안전과 국익을 위협하지 않는 한, 정복당하기 전의 전통과 문화는 물론 심지어 종교도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다.

64년을 기점으로 네로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였을 때, 기독교는 로마제국에게 어떤 의미에서도 위협적이지 않았다. 이미 고양이의 낱카로온 발톱 앞에 선 생쥐와 같이 그냥 당해야 했다. 네로의 박해는 로마라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다. 엄밀하게 따지

면, 기독교인들은 온전하지 않은 정치인의 횡포에 의해 희생제물이 된 셈이다. 로마황제를 포함한 로마인에게 기독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분명 두 개의 종교였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한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러나 초대

세력이 커짐에 따라 기독교에 대한 태도가 변화된 것이다. 전에는 하층은 대상으로 여겼던 기독교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협적인 대상으로 여겨졌다는 반증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의 대상으로 삼고 온갖 박해를 가했다는 것은 기독교의 힘이 커졌기 때문이다. 로마황제의 관심은 힘을 힘으로 누

는 사람들에게 무자비한 태도를 주저하지 않았다. 자신에게 위협적인 존재라고 생각되면 부당한 방법으로 죽이는 것을 일삼았다. 자신의 위력을 위해서 어떤 일도 감행하던 사람이었다. 항상 절대적인 권력을 꿈꾸던 그는 자신의 힘을 키울 수 있는 묘안을 생각해냈다. 도미티안 황제 자신이 신이 되는 것이었다. 로마는 전통적으로 신의 절대적인 힘을 인정하고 섬겨왔다. 특히 로마가 지닌 힘을 공화정 시절부터 섬겼던 신들로부터 수여받은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신의 축복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지녔던 그는, 자신을 신으로 삼고 민중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 것이다.

비밀스럽게 모여 로마정부를 대항하기 위한 모략을 세우는 수상한 단체라고 여겼다. 그가 기독교를 불법으로 여겼다는 것은, 반드시 위협적이지 않더라도 상대가 힘을 지닌 단체라는 사실을 인정할 셈이다.

111년부터 113년까지 비시니아의 총독으로 있었던 플리니(Pliny)와 트라야와 주고받은 편지를 통해서 그 당시 로마 정치인들이 이해했던 기독교의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플리니는 자신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 기독교인들을 붙잡아 행한 일을 편지에 상세하게 기록하여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은밀하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고

초대교회가 갈수록 더 큰 시련 맞은 것은 신앙이 더 단단해졌기 때문 교회의 힘은 어떤 환경에도 변치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정절

르려 하는데 집중되었다.

■ 핍박- 교회의 힘에 대한 입증

초대교회는 로마황제들로부터 온갖 시련과 핍박을 받았다. 네로 황제(54-68)를 시작으로 디오클레티안 황제(284-305)에서 마친다. 313년에 선포한 '밀라노 칙령'과 함께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끝났다. 초대교회는 최초의 기독교 로마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의 직접적인 도움과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성장한다. 그러나 이때까지 초대교회가 걸어야 했던 고난의 길을 무척 길고 험했다.

도미티안 황제(81-96)는 여러가지 면에서 네로황제와 근본적으로 다를 바가 없었다. 그는 매우 거친 성격의 소유자였다. 자신을 적대하

는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는 정당성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을 신으로 섬기는 것을 거부한 자들을 색출하고 무자비하게 대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는 사도 요한을 밧모섬에 유배시킨 장본인이며, 나아가서 예수의 친척과 유다의 손자들을 로마로 소환하여 취조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신의 위치에 올려놓은 그는, 결국 궁전에서 암살당하여 비참한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

트라야 황제(98-117)로부터 초대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그는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계속하여 황제 숭배를 강요한 그는 항상 기독교인들이

하였다. 그는 황제에게 기독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였다. 만일 이렇게 내버려두면 결국 로마에 속한 "모든 연령과 지위, 그리고 성별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이 위험해 질 것임니다. 이 미신이 도시는 물론 마을과 농촌에도 퍼져습니다"(플리니, 편지, 10.96). 로마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세력이 확장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려한 것이다.

그러므로 플리니는 자신이 일단 기독교인들을 붙잡으면 그들에게 배교를 강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기독교인이냐고 물어서 그렇다고 시인하면 두세 번 다시 물어 겁을 주었다고 말하였다.

(9면으로 계속)

가정사역 칼럼

이혼 가정의 충격과 회복

금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가정의 이야기를 듣다보면 참으로 눈물겹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다. 이혼한 사람들의 사연을 중심으로 이혼과정에서의 충격과 가정의 회복과정을 다루어 보려고 한다. 이러한 충격과 관련하여 윌리엄 버만과 데니스 텍은 이혼 후 겪는 6가지 주요 스트레스 목록을 만들었다.

① 이혼한 배우자와의 접촉: 배우자와 금전 문제, 자녀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것, 자녀방문.

② 부모자녀 간의 상호작용: 아이들과 인생과 이혼에 대해 대화해야 하는 것, 감정표현.

③ 대인관계: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사회활동에 참여하고 타인들과 친밀감을 갖는 것.

④ 외로움: 우울감과 외로움, 한 인간으로서 부적합하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

⑤ 실제적인 문제: 요리, 가사,

자녀들과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

⑥ 경제적 문제: 충분한 돈을 버는 것, 수입과 지출의 균형을 이루는 것.

이것들 외에 또 다른 문제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 한다. 주변에서도 화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며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함으로

서 이런 감정을 키워준다. 화해를 추구하면서 계속 희망을 가지도록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지만 상황이 종료되었음에도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은 오히려 회복을 더디게 할 뿐이다. 실제적인 화해의 가능성이 사라졌다면 이혼당사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빨리 비탄의 과정을 겪게 하고 회복과 관련된 실제적인 문제들과 직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한부모들에게는 이때 바른 지식과 정보 등의 도움이 필요하며 아울러 자신의 상황을 나누고 치유를 경험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속하거나 질서정연하지 못한 회복과정

그러나 회복은 신속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아니

다. 상실과 슬픔의 감정들이 마구 뒤엉켜서 어디로 뭉치 모르는 커다란 공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유명한 저자이자 상실에 관한 상담자 노만 라이트는 뒤얽힌 감정을 '감정의 불'(미움, 실망, 분노, 외로움, 연민, 무감각 등의 여러 감정을 한 원인으로 그려놓은 표)이라고 부른다. 마치 롤러코스터에 올라탄 듯 어느 순간에는 패배감에 빠졌다가 어느 때는 잘 이겨낼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감정의 불이 그려진 그림을 보며 오늘은 어떤 감정인지 자신의 감정을 체크해 보라. 어떤 날에는 갖가지 감정이 다 경험되어질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날에는 한두 가지 감정만 생활 속에서 두드러질 수도 있다. 그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상실 슬픔에 대해 감정의 불을 사용하여 상담자와 이웃과 이야기 해보라. 그

래야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다른 사람들도 이 감정의 불을 통해 그들의 슬픔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대다수의 결혼의 위기를 겪고 있는 사람들은 결혼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이혼에 대해 생각한다. 이혼만 하면 훨씬 낫아갈 것 같은 착각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혼 후 혼자서 넘겨야 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혼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언제든 할 수 있다. 이혼으로 종지부를 찍기 전에 상담이나 교육을 통해 의사소통의 기술이나 자라온 가정에 대한 이해, 갈등해결의 기술, 건강한 자아를 회복하는 것 등을 경험해 보기를 권하고 싶다. 이혼은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곤 하기 때문이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6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둘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000.00
		Inside	\$10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800.00	
(칼라)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Listing size	\$100.00	

무료 리스팅 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Fax.()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Fax.()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9)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도 (I)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지를 변화시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는 데 있다. 그러므로 기도는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를 먼저 요청하고 하나님 앞에 열려진 문제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찾아내어 성취시키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기도는 내 뜻과 소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구해야 한다(시55:7-9). 그렇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주시지만 당신의 뜻에 합당한 쪽으로 일을 처리하신다. 그러므로 내 뜻대로 안된 것이 오히려 잘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서는 이해하기 힘들지만 오랜 시간을 두고 기도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상으로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심을 알게 될 것이다.

기도에는 실패가 없다. 염려 말고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하신다.

말해 '듣시는 줄을 안다면' 또한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이다.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100%이다.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은 기도에 대해 잘못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기도는 주의 약속과 능력을 확신하는 것이다(삼상1:18, 왕상18:41-46). 어떤 이들은 기도 후

고 가르친다. 그래서 어떤 때는 통성기도를 시켜 세 시간씩 끌고 나가는 때도 있다. 누구든지 우리 교회에 오면 못하던 기도도 할 수 있고 안하던 기도도 하게 되고, 맛을 모르던 사람도 기도의 맛을 알게 된다. 기도를 포기했던 사람도 기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기도해야 하겠다는 마음의 소원이 불일듯 일어난다.

기도의 목적은 내 뜻은 꺾고 하나님의 뜻 성취하는 것
기도하는 법은 기도로 배우고, 기술이므로 훈련이 필요
모든 힘의 원천은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는 강력한 기도

세상에 힘했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기도는 실패가 없다. 기도한 만큼 역사는 나타낸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주님을 믿고 주님께 맡기기도 하자. 이것이 주님의 뜻이다.

빌립보서 4:6-7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라고 하셨다. 기도가 바로 문제해결의 열쇠요,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그 자체이다.

요한일서 5:14-15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라고 하신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다시

5분도 되기 전에 내용도 잊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린다. 기도한 것을 믿지 못하면 응답은 없다. 한나는 기도 후 다시는 수색이 없었고, 엘리야는 지중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다는 보고나 듣고도 "먹고 마시소서, 큰비의 소리가 있나이다"라고 했다.

이들은 표적이 있어서가 아니라 믿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염려를 통해 일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신다. 모든 힘의 원천은 성령의 도움으로 행하는 강력한 기도다.

기도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기술이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보다 더 좋은 기술이 없다. 그런데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 아니 어떤 교인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한다. 신앙의 연조가 오렐 수록 그런 것 같다.

나는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생활을 발전시키라

기도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기도는 가장 무식한 사람도 할 수 있는 말이며, 가장 유식한 지식인의 입술에서도 나올 수 있는 수준 높은 언어의 표현이다. 그런데 어떤 유식한 사람들 중에는 "뭐 기도가 필요하냐?"고 하는 이들이 있다. 심지어 기도에 대해 혐오감을 느끼는 이들도 있어 마치 기도하는 사람을 잘못된 사람, 혹은 불쌍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도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다. 밤을 새며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명령하신 일이다(살전5:17).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정상적인 성도이다.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기도의 참다운 맛과 효력과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이다. 기도를 멀리하면 개인이나 교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경은 끊임없이 기도를 요구하고 영적 성장에 절대적인 영향력

을 가지고 있음을 거듭 가르쳐 준다. 초대교회는 "기도에 전혀 힘썼다"(행1:14). 우리가 제일 조심해야 할 것이 기도하기 싫어질 때 거기 넘어가는 것이다. 도저히 기도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 더욱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기술이니 당연히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다. 좋은 기술을 익히기 위해선 누구나 많은 것을 투자한다. 우리나라에는 각 대학마다 의과대학이 있어 의대졸신들이 많다. 그러나 칼 들고 수술하는 의사는 그리 많지 않다. 외과 기술을 익힌 의사만이 수술할 수 있다. 의학 기술을 익히기 위해 많은 시간과 많은 학비가 필요하며, 또 체력이 소모되는 등 많은 것을 투자해야 한다.

부족한 좋은 이 세상에서 기도보다 더 좋은 기술이 없다고 생각하여 기도에 많은 투자를 한다. 그래서 체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금식도 했고,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추운 겨울 눈 속에서 11일 동안 견뎌보기도 했다. 그리고 하루 3시간 이상은 기도하는데 시간을 낸다. 바쁘면 바쁠수록 기도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를 배우는 것은 실로 기도 밖에 없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줄 몰라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기도를 배우라. 아무리 훌륭한 신학교에서도 기도를 잘 가르쳐 주지 못한다. 철학도 문학도 신학도 기도를 가르쳐주지 못한다. 그래서 신앙이 펼칠 꽃핀 청년도 신학교에만 들어가면 기도를 포기하게 된다. 이상한 일이다.

오래 전에 어떤 전도사를 보고 "왜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 전도사 왈 "목사님, 무엇 때문에 이 젊음을 허사시킵니까?"라고 말한다. 그다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는지 기도에 힘쓰는 것을 보았다.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기도를 배우려면 기도해야 한다. 기도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영적 체험이기 때문이다.

(계속)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40주년 교회 생일을 맞이하며...

어디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기내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저 아래 나를 기다리며 반겨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명치끝이 저러울 만큼 울컥 목이 메고 눈물이 쏟아질 때가 있다. 서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그렇게 살면서도 또 아파하고, 용서하고, 서로가 불쌍해 보여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우리들...

그렇게 어우러져 20여년을 함께 살아온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면 가슴이 뭉클해 오는 것은,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운 때에도, 또 어떤 때는 턱없이 모자라는 재정 앞에서도 우리의 가진 작은 것들을 옥합을 깨뜨려 주고 나누며 함께 수고한 날들과 눈물과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 96년도에 처음 이 교회에 부임하고, 또 98년도에 세성전으로 이사를 하면서 페이먼트가 버거워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를 가슴으로 수없이 되뇌면서도 내심 가슴 조이며 한 달 한 달 달을 보냈었는데...

교회 안에서도 하찮은 일로도 버럭 화를 내는 사람, 보이는 대로 말하며 느끼는 대로 판단하는 사람, 생각이 바뀌지 않아 계속 힘들어 하는 사람, 사랑한다고 말해도 믿지 못하고 계속 아파하는 사람,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너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찼던 이 교회 속에서 우리가 한 일과 우리가 드린 것에 비해 우린 너무나 많은 기적과 은혜 속에 살아온 것 같다.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에 턱없이 못 미치지만 그래도 그 은혜에 보답하려는 시늉을 하며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님들의 몸짓과 땀이 구석구석에 베어있는 우리들의 교회를 이제 40년 생일을 맞이하며 뿌듯한 맘으로 바라본다.

어린아이가 배앓이를 하면 엄마는 밤새 아이의 곁에 앉아 배를 문지르며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아니 그보다 더 세밀하게 우리의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 우리의 모습은 어느덧 영적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건강한 성전지들이 다 되어 있는 성도님들이 그저 자랑스럽다. 그렇게 성도들 간의 뜨거운 사랑이 그 울타리를 뚫고 나와 목장과 목장의 겹이 허물어지며, 교회와 교회사이의 벽을 뚫고, 교파간의 알력도 무너뜨려서 그야말로 양파의 껍질을 벗기고 벗기듯, 우리의 두터운 관계들도 하나씩 벗겨 나갔으면 좋겠다.

배가 가장 안전할 때는 항구에 있을 때겠지만, 그러나 항구에 묶어 놓기 위해 만들어진 배는 없듯이, 우리는 담대하게 저 광활한 바다를 향해 계속 노를 저어 갈 것이다. 비록 거기에 폭풍과 위험이 기다린다 해도, 아니 죽음까지라도 감수하면서 멀어져온 사명 부여안고 함께 갈 것이다. 그렇다. 오늘 우리가 고달픔과 수고로움이 있더라도 우린 광야 가운데서도 기쁘고 행복해졌기에, 그 수고로움 가운데도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잃지 않는 우리들이 될 것이다.

이제 40주년을 지나며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와 함께 우리가 이 땅에서 새롭게 감동해야 할 새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의 자녀들, 아니 손자 손녀들이 지금 우리가 이룬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들로 살 것을 베택 가슴으로 바라보며, 기쁨으로 믿음의 씨를 뿌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한 사람도 낙오 없이, 이 땅에서의 삶이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이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욱 확실하게 깨닫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우리들을 모아 놓으셨는지...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신의학교학원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1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인정강성교회(이철홍목사) 8일 평화이웃사 기도원 (피종진목사) 11일 ~ 13일 (함동)동이천교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과천교회 (조진우목사) 16일 에복교회 (송석홍목사)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5일 ~ 17일 소망교회 (이정현목사) 18일 ~ 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 (오영택목사)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1일 ~ 3일 예수비전교회 (박창홍목사) 4일 ~ 5일 총신대학교 성령순례회 (함동)태백시찰 연합성회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 26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6일 ~ 8일 웅인 신세계교회 (문종우목사)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2일 안산 시민교회 (이성관목사) 2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화평교회 (이재욱목사)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5일 ~ 11일 온양감리교회 (노광현목사) 15일 ~ 17일 예우림교회 (류병희목사) 22일 ~ 24일 (함동)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25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9일 영동교회 (강대석목사) 20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7일 ~ 29일 천마산기도원 (홍광석목사)	1일 ~ 2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일 ~ 6일 나사렛신학교 2년 연합성회 GST 신학생훈련 (35차) 17일 ~ 2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3일 ~ 8일 천은교회 (강대석목사)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0일 ~ 23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1일 ~ 23일 풍산교회 (박경순목사)	4일 ~ 7일 성동중앙교회 (이인호목사)	11일 1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일 삼남성결교회 (이동연목사) 15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19일 대림교회 (윤영민목사) 27일 ~ 29일 드림교회 (정준희목사)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강사제일교회 (전종남목사)	11월 1일 ~ 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일 삼남성결교회 (이동연목사) 15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6일 ~ 19일 대림교회 (윤영민목사) 27일 ~ 29일 드림교회 (정준희목사)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강사제일교회 (전종남목사)	12월 1일 ~ 2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3일 ~ 2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28일 ~ 3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송주영신예배	1월 1일 ~ 14일 일심교회 (김교문목사) 19일 ~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2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10일 ~ 13일 정원교회 (원종진목사) 17일 ~ 19일 복음시대의교회 (사기영목사) 23일 ~ 26일 신학성 철야기도회 (GST)	4월 1일 ~ 3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재를 14일 ~ 17일 본도기독교회 (최현규목사) 19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30일 신학성 철야기도회 (GST)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 (최민호목사) 12일 ~ 15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강화)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 (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신대학교 (김강덕목사) 16일 ~ 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5일 ~ 29일 LA 나사렛신학교 (한기영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일 ~ 6일 LA 베이커스빌 성결교회 (지종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 (안양) 24일 ~ 25일 신학성 철야기도회 (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9월 11일 ~ 12일 평화이웃사 기도원 (피종진목사) 13일 ~ 2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4일 당기주 주님의교회 (한기영목사)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8일 ~ 11일 함평아시아 K-중앙교회 (이충일목사) 13일 ~ 17일 양로교회 (정원희목사) 21일 ~ 23일 온대이웃교회 (김형제목사) 24일 ~ 28일 폴리스 성결교회 (문종우목사)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10월 15일 ~ 7일 포인팅교회 (김영준목사) 13일 ~ 16일 해미대 신학대학원 강의 갈멜산금식기도원 (강화) 19일 ~ 22일 총신대학교 (김기영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LA 베이커스빌 성결교회 (지종근목사)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 (미국) 2일 ~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 (신종훈목사) (마리나를 불러 온 성회) 11일 영동교회 (사기영목사) 16일 ~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순수교회 (송석홍목사) 24일 ~ 26일 대림교회 (윤영민목사) 27일 ~ 30일 미중문화원 부흥사순주영 권의 신도철 철야기도회 (GST)	12월 8일 ~ 31일 영신교회 (이영민목사) 11일 ~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안양) GST 미전리서치 (함부민목사) 14일 ~ 21일 시학성 철야 송년어배 (GST) 28일 ~ 31일 헬산금식기도원 송주영신예배



목회서신

거꾸로 된 다윗과 골리앗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교회 담임)

지난 6월 26일은 참으로 슬픈 날이었습니다. 미연방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킨 날이 었습니다. 이제 미국의 50개주가 모두 동성결혼을 합법화하였습니다.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37개 주 외에 나머지 동성결혼을 금지한 13개 주도 주민투표와 상관없이 연방대법관의 5:4 판결에 따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은에서 미국의 정의 속에서 이정표가 세워졌으며, 이는 '미국민의 승리'라고 대법원의 판결을 받겼고, 지미 카터 대통령은 "예수도 동성결혼을 인정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코카콜라, KFC와 구글, 애플, 유튜브, 아마존, 페이스북, 트위터, 마이크로소프트, IBM 등의 IT 업체와 델타, AA항공사와 유니클로, 리바이스, 게스, 켈빈 클라인, 겐, 에버크롬비 등의 의류업체와 아디다스, 나이키, 디렉터비, CVS, 비자카드, 우버, 스니커즈, AT&T, 버라

이즌, JP모건, 밴크 오브 아메리카, 월트디즈니, 하이네켄, 버드와이즈, 맥도널드, 포드 등 업종을 불문하고 대부분 기업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를 지지하며, 자사의 광고, 로고를 온통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색'으로 바꾸어 마케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태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 천지창조의 클라이맥스, 최고의 걸작품은 인간창조, 즉 남자와 여자의 창조였습니다. 천히 결혼제도를 제정하시고, 최초의 주례자가 되셔서, 이성 간에 부부의 연을 맺게 하시고, 최초의 가정을 손수 만드셨습

니다. 이것이 곧 피조물 된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별분의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질서를 무시하고, 동성애에 의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질서와 가정의 질서는 파괴하는 것으로, 이는 곧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모한 도전이고 반역입니다. 하나님은 남색(게이)과 동성애(호모, 레즈비언)을 금하셨고, 이를 어기는 남색인과 동성애자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명하셨습니다(창19:5, 레18:22, 20:13, 사19:22, 왕상14:24, 롬1:24). 하나님은 특별히 도덕적, 성적인 타락의 경우는 예외 없이 심판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노아의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심판, 로마제국의 멸망, 폼페이 최후 등이 결국은 도덕적, 성적 타락의 결과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정치인 그리고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기업들이 동성애와 동

성결혼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가운데, 동성결혼이 미연방대법원에서 합법화되자, 교회와 교계지도자들은 할 말을 잃고, 뒷북치며 땀질 대책에 급급한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가정의 예배와 주일학교를 통하여 동성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지난 2011년 4월 윌리엄스 인스티튜트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실제로 동성애자, 양성애자, 랜스젠더를 총칭하는 'LGBT'는 전체 미국 인구의 1.7%(4백만명)를 차지하며, 양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제외한 순수 동성애자(게이, 레즈비언)는 1%에 미치지 못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합법화되기까지의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를 다 합해도 1000만 명이 되지 못합니다. 할리우드 스타와 교사, 교수연합 중심의 저들은 사탄의 술수인 자유, 평등, 인권, 평화를 앞세우고, 막대한 후원금을 바탕으로 동

성결혼의 합법화를 쟁취했습니다. 3억이 넘는 미국인 중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인은 미국인구의 47%(2014년 통계)로, 약 1억5천 명이나 되는데, 1000만 명도 되지 않는 저들에게 도리어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의 유린을 당하며 엄청난 억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희의 '에모'에서 "그대 앞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라는 가사가 생각납니다. 거대한 골리앗 같은 기독교인들이 작은 다윗 같은 동성애자들 앞에만 서면, 왜 작아지고 기를 펴지 못할까? 오히려 저들이 골리앗 같고, 우리가 다윗 같은 느낌이 들어 '거꾸로 된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명명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리쳤듯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므로, 우리는 기필코 마침내 승리하리라 확신합니다.

인/터/뷰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저자 이희숙 사모

“목사 때려치세요!” 하던 사모의 사모매뉴얼...26일 출판감사예배

이희숙 사모 두 번째 저서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쿰란출판사)가 출간됐다. 11일 본사를 방문한 저자 이희숙 사모는 출간된 새 책을 소개하며 자신의 간증도 들려줬다.

이희숙 사모는 시골 한 마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그러나 그 어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화여대를 들어갔다. 그 당시 이대는 김활란 총장이 시무하던 때였고 매년 10월이면 학생들을 위한 전도집회가 있었다. 이희숙 사모가 주님을 영접한 것은 대학 3학년 때 '스미스'라고 하는 찬양간증 시간을 통해서였다고 회고한다.

스미스라는 분의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 찬양에 빠져 들어갔다. 그가 부른 찬양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였다. 찬양을 마치고 간증을 이어가는 스미스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며 그 아버지에 대해 열심히 설명했다. 이희숙 사모는 그 부자 아버지만 말에 귀가 솔깃했다. "저 아버지를 양아버지 삼으면 등록금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 빠져있을 때 자신의 마음을 알거나 하는 듯이 "여러분도 원하기만 하면 내 아버지를 가질 수 있다.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싶은 사람은 손을 들라"고 요청했고 저자는 번쩍 손을 들어 그 아버지를 모시기로 작정했다.

이후 친구를 따라 정동교회에 나가 성가대로, 교사로 청년모임에 참석하며 대학시절을 보내며 미국 선교사를 만나게 됐다. 그 선



자신의 간증과 함께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를 소개하고 있는 이희숙 사모

교사는 바이블 클래스를 시작하며 성경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선교사에 관한 꿈을 심어주었다. 그 때 저자는 "졸업하면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 이대 교수가 돼야지"하는 야무진 꿈을 품게 됐고 그 꿈이 이루어져 1963년 인디애나 지역으로 유학길에 올랐다.

그러나 한국으로 돌아가 교수가 되겠다는 꿈은 수포로 돌아갔다. 미국에서 약사면허를 따고 이병희 목사를 만나게 됐다. 결혼을 앞둔 이희숙 사모에게 사람들은 말했다. '사모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이고 도마 위에 놓은 생선'이라고 놀림을 당했다. 그러나 그 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던 그

는 이병희 목사와 결혼하고 미국 감리교회 교육목사로 파송받아갔다. 그때까지는 그리 어렵지 않고 즐겁고 좋은 시간으로 기억됐다.

그런데 얼마 후 한인교포들이 찾아와 개척을 당부했다. 당시는 70년대 이민의 문이 열려 한인들이 미국인과 결혼한 한인들은 많았지만 그 지역에 한인목사가 없던 터라 한인교회의 필요성이 절실했던 때다. 이병희 목사는 그들의 청을 받아 '글리브런드한인교회'를 시작했다.

이때부터 이희숙 사모는 '어항 속에 든 금붕어'이고 도마 위에 놓은 생선'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하게 됐다. 사모의 역할이 뭔지, 목회자가

정의 애로점이 뭔지, 전혀 경험도 없고 배움도 없던 이희숙 사모는 이제 막 이민보따리 들고 미국에 들어온 교인들의 지적을 받을 때 마다 솟아오르는 분노 때문에 속으로 '너나 잘하세요'라고 외치며 남편을 향해 '목사 때려치라!'고 소리쳤다.

또한 그 당시 부흥사들이 오면 '회개하라'고 외치지만 자신은 아무리 생각해도 회개할 것이 없었다. 열심히 병원에서 일하면서 한인들의 입이 되어주고 최선을 다하는데 무슨 회개? 열 사람의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하는 모습이 이상하기만 했다. 더구나 그렇게 울

가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울며불며 하나님께 하소연했다. "어쩌다 내가 목사와 결혼해서 이렇게 스트레스로 병을 얻고..."라며 푸념을 하는데 이게 웬일인지 허가 꼬이며 방언이 터졌다. 그리고 지나온 내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가 부끄럽기 그지없어 울고 또 울었다. 그날 이희숙 사모는 성령의 불을 받고 육체적인 질병도 나음을 받게 됐다. 성도들을 찾아가 용서를 빌고 화해의 역사를 이루었다. 삶이 달라졌다.

그런데... 성도들이 뭘 물어보면 아는 것이 없어 부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사모가 무엇을 해야 하고 뭘 해야 하는 것인지, 카운슬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약사를 그만두고 신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면서 사모들을 위한 책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세상적으로 살면서, 세상

우세요! 하던 사모가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를 출간하게 됐다.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는 제 1부 '목회자 사모를 위한 일반적인 이해', 제 2부 '목회자 가정에 대한 사모의 임무와 역할', 제 3부 '목회 사역에 대한 사모의 임무와 역할', 제 4부 '사모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및 실재', 제 5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사모'로 구분되어 총 20장으로 상세하고 꼭 알아야 할 사모 매뉴얼이 수록되어 있다. 또한 '목회자들이 바라는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사모', '영, 혼, 육을 위한 능력의 기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은퇴 후의 노후대책을 세우라'가 부록으로 수록됐다.

이희숙 사모는 "저는 선교사에게 빛이 자입니다. 선교사에 의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저희 부모들도 선교사에 의해 복음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로컬처치에서 은퇴한 남편 이병희 목사와 '세계복음선교회'를 통해 선교에 매진하고 있지요"라고 현재 근황을 말한다.

세계복음선교회는 목회하던 교회의 장로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된 단체로 각 선교지에서 수고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돕고 있다. 지난 10년 세계복음선교회를 통해 모스크바, 인도, 중국, 도미니카, 태국 등 수많은 선교지를 돌며 강의와 여성선교사 수련회 등을 통해 그들을 격려하며 사역을 이어가고 있다.

이희숙 사모의 "최고의 에제르가 되다" 출판 감사예배는 9월 26일(토) 오후 6시 가든스윗 호텔에서 진행되며 30명의 미자립 교회를 섬기는 사모들을 특별 초청한다. 자세한 문의는 (310)709-7662로 하면 된다.

(이성자 기자)

선교사 간증집회서 회심...은퇴목사 남편과 선교사 후원사역 매진



고불고 한 이들에게 축하한다면 사모인 나에겐 아무도 축하를 보내지 않으니 참으로 이상하기만 했다. 이렇게 고민하며 사는 사이에 자신의 몸은 신경성으로 망

적으로 생각하며, 사모에 자리에서 실수 한 것들을 매모하기 시작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이야기들을 사모들에게 들려줬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엮어 첫 번째 자서전 '목사와 결혼한 죄 밖에 없어요'를 출간했다.

책이 나오고 교역자수련회 때마다 이희숙 사모는 자신의 간증과 함께 사모의 역할을 강의하기 시작했다. 사모들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이런 상황을 아셔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렇게 강의와 간증 집회를 이어가자 사모들은 '사모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았고 이 건의를 받고 금번에 두 번째 자서전 '목사 때려치



산돌선교회 주최 고 김계용 목사 25주기 추모예배 및 장학금 수여식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고 김계용 목사 추모예배 및 산돌장학금 전달식

6개 신학생 등 21명에게 총 2만2천 달러

고 김계용 목사 25주기 추모예배 및 산돌장학금 전달식이 1일 오전 11시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 친교실에서 열렸다. 박희민 목사 인도로 시작된 추모예배는 이상병 목사 기도, 김경진 목사 설교(산돌같이/벧전 2:4-5)

제한고 목사의 축도로 진행했다. 김경진 목사는 "오늘 추모예배와 더불어 장학금 전달식 갖게 돼서 감사하다"고 언급하며 "산돌장학금은 고 김계용 목사님께서 신학생들과 신학교 위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나라 희망이라는 정신을 가지고

△탈북신학교: 최치형, 김충만, 이성진 △아주사신학교: 이신일, 최평선 △플러신학교: 권도근, 소평순, 이장조, 조철환 △미주장장신학교: 김태정, 김현희, 유희성, 이영근, 김미혜, 노영주, 성동숙 △무디신학교: 김성수 △유인대학교신학교: 장성용 △버클리음대: 김승연. (박준호 기자)

마련하셨다. 이 정신이 계속 이어가야 한다. 특히 교회와 신학교가 힘든 시기엔 이를 타개하기위해 산돌회가 더 번영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장학금은 1천 달러 씩 21명에게 전달됐다. 다음은 장학생 명단.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면에서 계속)

그 결과 두 종류의 반응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하나는 배교의 길을 걷는 자들이었다. "일부는 그들이 신자였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제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신들에게 호소를 하고, 나아가서 당시의 형상에 향과 포도주를 울리며 기도를 하였습디다.... 그들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자도 있었습디다"(플리니, 편지 10.96). 다른 하나는 배교를 부정하는 자들이었다. "저는 자기의 신앙을 주장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선도했습니다. 그들의 신앙고백과 고집과 견고함을 살펴보면 형벌을 받는 것이 너무도 당연합니다"(플리니, 편지 10.96).

플리니가 황제에게 보내는 편지의 내용을 가장 잘 요약할 수 있는 한 대목이 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설득할 수 없습니다"(플리니, 편지 10.96). 이것이 교회의 힘이었다. 그 힘은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의 힘이었다. 신앙을

포기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 굴하지 않고 당당한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앙에 근거한 운운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트라얀 황제가 플리니의 편지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 그는 플리니가 바른 일을 했다고 칭찬하며 격려한다. 기독교를 떠나는 자들에게는 관대하고, 신앙의 고집을 부리는 자들에게는 계속 어려움을 주라고 명령하였다. 한 마디로, 계속해서 힘을 가지고 누르라는 것이다. 교회의 힘은 로마의 정치인들을 걱정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초대교회는 더욱 커다란 시련을 맞게 되었다. 무엇을 반증하는가? 심자가 신앙에 기초한 교회의 힘이 더욱 단단해졌다는 것이다.

2) 성경이 보인다 - 디모데후서 1:8-12

복음은 우리에게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약속이다. 그의 약속은 반드시

실현된다. 그러나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그 약속을 지키시는가?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진실한 성도는 복음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신앙에 근거한 운운한 힘을 지녔기 때문이다. 상황이 바뀌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고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는다. 상황을 바꾸지 않으시더라도, 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게 된다. 그런데 성경은 그 복음의 능력이 진가를 보일 수 있는 시간을, 고난을 만날 때라고 소개하고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성도들을 고난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장본인이시다. 바울이 호소하는 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심지어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을 사모하라고 가르친다. 고난은 그 자체로서 가치가 없다. 그럼 하나님은 왜 고난을 허락하시나? 고난 가운데서 드러나는 복음에 능력이, 신앙이 바탕이 된 교회의 힘이기 때문이다. 교회의 힘에 대한 오해가 많다. 교회의 힘은 어떤 환경에서도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정절이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동부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정기총회

뉴저지교협의회(회장 이병준 목사) 제 29회 정기 총회가 9월 21일(월) 오전 11시 임마누엘 성결교회(담임 박찬순 목사, Linden and Prospect Ave., Ridgefield)에서 열린다. 교협 연 회비 100달러를 지급해야 한다.

▲문의: (201)669-7528 총무 이준기 목사

유년부 전도사 청빙

뉴욕 후러스 지역(Fresh Meadows)에 위치한 뉴욕성서교회(담임 이승원 목사, KAPC교단)에서는 영어와 한국어 이중 언어 사용이 가능한 유년부 담당 전도사를 찾는다. 이메일(victorhee4955@gmail.com)로 이력서를 보내면 된다.

▲문의: (718)229-0658

예배 무용 제 2회 정기 연주회

뉴욕필그림선교무용단이 9월 20일(주) 오후 6시30분 뉴욕신광교회(담임 강주호 목사)에서 예배 무용 제 2회 정기 연주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볼리비아 피리아 선교센터 후원을 위한 것으로 총연출/안무 최윤자, 특별출연에 김장숙, Love, Peace & Joy.

▲문의: (718) 357-3355

이연길 목사 초청 세미나

한소망교회가 설립 30주년을 맞아 9월 14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목회자 세미나를 갖는다. 강사는 이연길 목사(빛나리교회 원로목사, 말씀목회 공동체대표, 내러티브 성경해석 및 설교자). 이 세미나는 뉴저지교협과 함께 진행한다.

▲문의: (704)30-5443 이상훈 부목사

내 삶의 "Captivated"

2015년 청소년 할렐루야대회, 강사 2명 각각 하루씩 설교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 산하 뉴욕청소년센터(대표 송병기 목사, 사무총장 공재규)가 주관하는 "2015년 청소년 할렐루야대회"가 지난 9월 4일부터 이틀간 "Captivated"라는 주제로 프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열렸다.

강사는 첫날 금요일 저녁은 최사 무엘 목사(Worship as 1 Ministries), 토요일 저녁은 최다니엘 전도사(뉴욕만백성교회) 등 2명이 말씀을 인도했다.

이번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의 주제인 'Captivated'는 내용상으로 보면 '우선순위'가 된다. 현대사회의 빠른 기술의 발전 속에서 청소년들은 하나님 외에 자급적이고 유혹적



2015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에서 찬양팀의 인도로 참석 청소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인 SNS나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다.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이나 예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많이 찾고

집중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세상의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며, 세상의 것에 붙잡힌 청소년들이 아니라 성령에 붙잡힌 청소년이 되자며 '우선순위'라는 주제를 전했다.

첫날 누가복음 5:27-31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전한 최사무엘 목사

정·부회장, 감사 후보등록 공고

뉴욕교협 제 42회기...9월 18일 마감

뉴욕한인교회협의회가 제 42회기 정 부회장 감사 후보 등록을 공고했다.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은 오는 10월 26일(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지난 11일 일간지 광고를 통해 후보등록을 공고했다. 후보 부문은 회장과 부회장 및 감사로 등록 기일은 9월 14일(월)을 시작으로 18일(금)까지 교협 사무실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후보자격은 먼저 목사 회장과 부회장은 ①교협가입 5년 이상된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하며 ②목사안수 받은 지 10년 ③뉴욕 담임목회 5년 이상 ④교협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 역임 ⑤인격과 품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⑥출마는 각각 3회 이내로 제한하며 ⑦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에 소속된 자는 3년 이내에 입후보 할 수 없다.

감사 후보 자격은 1항과 4항, 5항에 한 한다. 평신도 부회장은 이사회 이사장을 역임한 자를 상례로 한다.

이외에 모든 입후보자는 영주권 이상 소지해야 하며, 뉴욕교협을 위한 공헌도가 있어야 한다고 명기돼

있다. 서류는 ①등록원서 1통(교협소정양식) ②소속 교단장 추천서 1통(독립교회 회원은 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로 대신) ③본 회 회원교회 10교회 추천서 ④증경회장단 2인 이상 추천서 ⑤이력서 1통 ⑥입후보 조건서 ⑦등록금(정부회장 2천 달러, 감사 1천 달러) ⑧여권사진 ⑨목사안수 증명서 ⑩여권과 운전면허증 ⑪교회현황서(출석교인 명부, 전년도 재정결산서, 최근 주보 4매)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감사후보자는 3항, 4항 6항, 11항은 면제한다.

이외에 모든 서류의 허위 또는 문서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총회에서 제명을 결정한다라 명시돼 있다.

각 후보들은 선관위(위원장 이병홍 목사)가 실시하는 언론 토론, 공고 및 홍보행위와 선관위가 정한 규정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금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718)279-1414로 연락하면 된다.

(유원정 기자)

이노비, 10월부터 음악 미술 치료프로그램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10월부터 10주간의 음악, 미술 치료 프로그램(EnoB Wellness Program: Creative Arts Therapy)을 시작한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참가자가 음악, 미술치료를 통해 직장 생활과 개인생활의 균형과 정신적으로 보다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데 있다.

이노비 강태욱 대표는 "현재 많은 한국어권 젊은이들이 뉴욕, 뉴저지 일대에서 직장 또는 학교를 다니면서 대인관계, 직장생활, 학교생활 중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소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미국인들에게는 비교적 보편화 되어있는 음악과 미술치료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접근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지 생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힘들어하는 한국어권 젊은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음악치료 프로그램은 음악 만들기, 노래하기, 율동, 음악에 대한 나눔과 호흡법 등으로 이뤄지며 그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각자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신청자들에게 어떤 음악적 기술이나 수준을 요구하지 않고 음악에 대한 문외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미술치료는 창의적 미술활동(그림그리기 등)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표현된 감정을 관찰해 심리적 갈등을 발견, 해소하며 자아를 탐구하게 된다. 프로그램은 진행하면서 참여자들은 스트레스 대처능력을 회복하고 개인의 정신건강을 기르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 프로그램은 10월부터 10주간 1주일에 한번 50분씩 총 10회 동안 맨해튼에서 진행되며, 미술과 음악 해소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다. 미국인들에게는 비교적 보편화 되어있는 음악과 미술치료가 언어적인 문제로 인해 접근이 힘들고 감정적으로 힘들어도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타지 생활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힘들어하는 한국어권 젊은이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음악치료는 엔젤박 음악치료사, 미술치료는 이수진 미술치료사가 맡는다. 참가비는 1회당 20달러(총10회)로 기존 클래스보다 90% 정도 저렴하다.

자세한 프로그램 문의는 (212)239-4438, enobinc@gmail.com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이노비)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뉴욕리폼드신학교 2015가을학기 개강예배

뉴욕리폼드신학교(학장 유상열 박사) 2015년 가을학기 개강예배가 지난 6일 저녁 6시30분 본교 예배당에서 열렸다.

이날 예배는 유상열 목사 인도로 기도 박벌별 학생, 특송 김정길 전도사, 설교, 헌금 및 축도 최효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개강에 맞춰 특강 등을 위해 시애틀 워싱턴에서 초청된 초대학장 조국환 박사는 마태복음 9장 35-38절을 본문으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조 목사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은 본교 개교 시 첫 학생모집 광고에 사용했던 문구"라며,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주의 은혜의 해(눅4:19)를 전파하심은 이사야서의 은혜의 해(사61:2)를 선포함과 같이, 이 은혜를 통해 갓고 아프고 소외되고 눈먼 자를 낫게 하시는 체험의 사역 선포가 시작된다.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두 가지의 부르심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부르심이 있으며, 다음 단계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게 위한 부르신의 선택을 받은 것이다.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시고 선교의 현장으로 보낼 때 하신 말씀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고치고, 살리며, 치료하

는 "아무리 죄인이고 세상과 사람들의 조롱을 받아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면 먼저 부르시고 치유하신다. 그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다.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붙잡는 것이 많은데, 세상의 유혹을 버리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청소년들이 돼 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상징적인 일이 일어났다. 설교를 마친 최 목사는 뒤쪽에 설치된 무대로 자리를 옮기고, 그 뒷자리에서 기도와 찬양을 인도했다. 강사가 자리를 옮기며 따라 집회에 참가한 청소년들의 시선도 뒤를 향했다.

이 단순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과 예배에서 스마트 폰보다 우선순위가 되지 못하고 뒷전에 외롭게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자신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형식적인 집회가 아니라 다이나믹하게 청소년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행된 2015년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의 찬양은 필라델피아 팀이 맡았으며, 매 순서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발랄하게 진행됐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리폼드신학교 2015가을학기 개강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F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화-토) Tel: (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아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강점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00 Tel: (347)753-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886-4040, Fax: (718)35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ochurch.org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5:40 금요일기도회: 오후 8:30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cdchurch.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201)342-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n.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강연회: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인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기도: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자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에벤에셀신학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남예배: 오전 10:45 주일여예배: 오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페인어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교회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킨즈타운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o.org	킨즈타운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7:30 금요일(사)예배: 오후 8:30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남예배: 오전 11:00 주일여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3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전 12:30(영어)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AÍ-SA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Ó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수요일기도회: 저녁 9:00 주일학교: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8:00 주일4부예배: 오후 8:00 (1, 2, 3, 부스페나쉬 설교) Tel: (595)211-574-985 E-mail: hanjkn@han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ó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5:30(월-토) 새벽기도회: 오후 8:00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www.hnw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한인종합회관 건립에 '첫 삽' 헌금 전달

OC교협, 목사회 등 5개 교계단체

오렌지카운티 지역 교계 5개 단체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오렌지카운티한인회(회장 김가등)를 방문, 지난달 15일 감사한인교회에서 열린(담임 김영길 목사) 광복 70주년 OC 연합행사에서 모금된 헌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광복70주년 행사를 공동주최한 OC교협(회장 김가등 목사), 원로목사회(회장 최승구 목사) 목사회(회장곽재필 목사) 장로협(회장 김중대 장로) 그리고 행사를 총괄한 평신도연합회(회장 윤우경) 등 5개 단체장은 교계를 넘어 한인종합회관 건립에 동참키로 의견을 모으고 비록 적은 금액이지만 첫 삽을 뜨는 심정으로 첫 번째 헌금을 전달한 것이다.

단체장들은 전달식 직전 한 시간 가량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197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오렌지카운티 한인인구가 이제 30만을 넘었고 교인 수 5000명에 이르는 다수의 대형 교회를 포함, 450여 한인



OC한인교계단체들이 한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헌금을 OC한인회에 전달했다

교회에 이 지역에 산재해 있음을 생각할 때 한인종합회관건립은 한인교회들도 함께 책임지고 완성해 나가야 할 과제가 됐다"고 의견을 모았다.

김가등 회장은 교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한인 종합회관 건립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과 연합에 큰 의미 있는 일이

며 오랜 기간 논의돼온 이번 회관 건립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렌지카운티 한인종합회관 건립을 위해 그동안 모금된 금

액은 역대 회장단들로부터 전달된 45만여 달러와 김가등 회장과 김종대 이사장 및 이사회가 최근 기부한 15만 달러, 개인 및 각계각층의 지원 등, 총 80여만 달러 가까이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5백만 달러 예산으로 300-500여명 수용이 가능한 강당 및 다수의 사무실 등이 들어설 한인종합회관이 건립되면 한국 문화 홍보와 한인들을 위한 영사 업무 포함, 각종 봉사 및 서비스 및 교계 활동 등이 한 곳에서 가능케 됨은 물론 1.5세, 2세 청소년과 청년들, 한인 고령층 및, 다민족에게도 열린 공간으로 활용되는 등, 지역 공동 문화의 중심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인종합회관이 건립될 위치로는 Fullerton, Buena Park, Stanton, Irvine, Garden Grove 등 모두 7여 곳이 논의되고 있으며 몇몇 시관계자들이 회관 유치를 위해 이미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김가등 회장은 밝혔다.

(기사제공: OC평신도연합회)

서부교계 게시판

2015 밀알의 밤

남가주 밀알선교단(단장 이종희 목사)이 주최하는 밀알장애인 장학복지금 마련을 위한 2015 밀알의 밤이 18일(금)부터 20일(주)까지 개최된다. '하나님의 선물(영:2-8-10)'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밀알의 밤 일정은 △18일(금) 저녁 7시 30분 ANC온누리교회(담임 유진소 목사) △19일(토) 오후 7시 담임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 △20일(주) 오후 7시 베델한인교회(담임 김한요 목사).

▲문의: (657)400-9570

더텐트 파킹랏 콘서트

더텐트(대표 다니엘방 목사)가 주최하는 파킹랏 콘서트가 'The Tent with CCM ROOKIEs 2015'라는 주제로 19일(토) 오후 7시 주영여학교(639 S. New Hampshire Ave. LA)에서 열린다. 출연지는 2015 CCM루키 대회에 참가자들로 장승기, Three Fold Cord, 예즈라, 정명훈, 강웅, 임형우 등이다.

▲문의: (213)999-4909

제34회 남가주 성가 대항창제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회장 서병호 장로)가 주최하는 제 34회 남가주 성가 대항창제가 20일(주) 저녁 7시 남가주주님의교회(담임 한의준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562)596-3806

드림교회 설립37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예배

드림교회(담임 정영희 목사) 교회설립 37주년 기념예배 및 신천권사, 전일권사 임직예배가 오는 20일(주) 오전 11시에 열린다.

▲문의: (626)793-0880

OC영락교회 가을부흥회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는 가을부흥회를 11일(금)부터 13일(주)까지 개최한다. 부흥회 강사는 박형은 목사(동양선교회 담임).

▲문의: (714)534-1135

대흥장로교회 가을영적각성집회

대흥장로교회(담임 권영국 목사)는 가을영적각성집회를 18일(금)부터 20일(주)까지 개최한다. 집회강사는 서임주 목사(포항중앙교회 원로).

▲문의: (310)719-2244

KPCA 서중노회 여성교회 찬양제

KPCA 서중노회(노회장 심삼래 목사) 여성교회 찬양제가 13일(주) 오후 5시 남가주동신교회(담임 백정우 목사)에서 열린다.

▲문의: (714)680-9556-7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 팍 애비뉴에서 열린 필로스 듀오 콘서트가 열렸다

필로스 듀오 콘서트 남가주 첫 공연

10대 청소년 남매 기타리스트 듀오 필로스(장하은, 장하진) 콘서트가 4일 오후 6시30분 한인타운에 위치한 갤러리 팍 애비뉴에서 열렸다.

필로로 프라렛의 리더이자 필로스 듀오의 아버지인 장형섭 교수(칼빈신학교 교수)는 "필로스는 그동안 500회의 크고 작은 공연을 가진 바있다"고 말하며 "그동안 시애틀과 포틀랜드 등 미 서북부 지역에 공연을 가진 적은 있지만 남가주는 이번이 처음이다. 앞으로 남가주 지역 공연을 지속적으로 가질 예정"이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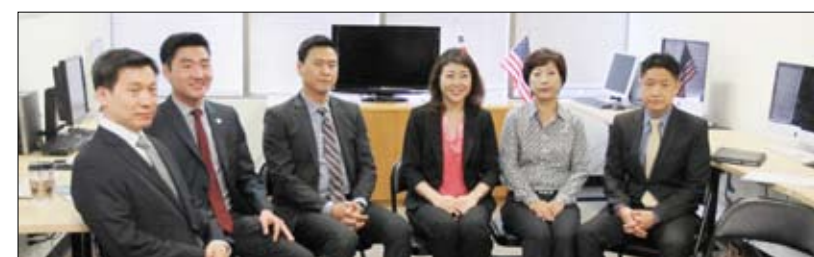
이번공연은 필로스의 대표곡 바이킹맨을 비롯 레드제플린의 Stairway to heaven 등을 연주했으며 장하은의 자매의 리코더와 하진형제의 기타 협주로 차르다시를 연주했고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을 연주했다.

또한 장형섭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백찬영 형제(중3)가 keep the groovin을 연주했으며, 뮤지컬 가수를 준비 중인 김수경(고1) 형제가 출연해 노래를 불렀다. 또 이날 캐나다에서 활동 중인 듀오 무형문화제 제 23호 고예진 선

생과 백석예술대학교 교수인 중요 무형문화제 제40호 흥흥기 교수가 잔조 출연해 가야금병창과 고전무용을 선보였다.

필로스듀오는 4일 브릿지교회, 6일 은혜와진리교회, 그리고 11일 나성순복음교회에서 각각 콘서트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KCCD주최 제14회 주택구입박람회 개최에 대한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KCCD 주최 14회 주택구입 박람회

19일 오전9시-오후1시, 월서연합감리교회

KCCD(회장 임혜빈) 주최 제14회 주택구입박람회가 오는 19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1시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월서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 4350 Wilshire Blvd)에서 열린다.

임혜빈 회장은 2일(수) 오전 10시30분 KCCD 사무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택구입박람회는 최대 6만 달러까지 다운페이먼트를 지원하는 등의 정부 보조 프로그램, 특별 용자 상품 등을 소개하고 크레딧 점수 관리 및 회복 방법을 설명하게 된다. 또한 주택관련 전문가들과 은행 관계자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택구입을 하는데 겪는 어려움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구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람회 관련 문의는 kccd.org, (213)985-1500로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예수장이’ 로 살고 싶다...”

토랜스선한목자교회, 텔런트 정애리 권사 간증집회

토랜스선한목자교회(담임 김현수 목사)는 텔런트 정애리 권사 간증집회를 4일 저녁 7시30분에 가졌다.

정애리 권사는 "어린 시절 친구 따라 사탕 얻어먹으러 교회에 나갔던 것이 계기가 돼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 권사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은 가졌고 고등학교도 미션스쿨인 금란여고에 다녔었다. 하지만 정자 교회에 나가게 된 것은 연가자가 된 이후"라고 언급했다.

정 권사는 "고등학교시절 무용을 배웠지만 건강상 이유로 무용을 할 수 없게 됐다. 마흔 오빠의 권유로 KBS 텔런트 시험을 보게 됐는데 3000대1이란 경쟁률을 뚫고 특선으로 연가자가 됐다. 그러나 연기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서 방송국 편지실을 들락거려며 연가자의 연기를 모티프로 연기할 배웠다. 특별히 이미지가 좋은 배역

을 많이 맡게 되어 생각지 않은 사랑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고 그것이 계기로 광림교회를 나가게 되고 그 의미를 찾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월드비전에서 300명의 아동들을 후원하고 있다. 또한 '더 투게더'라는 아프리카 르완다 지역의 빅토리아호수에 병원선 사역을 하는 NGO사역도 시작했다. 이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전해질수 있기를 바라며 이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고 후원 바란다"고 말했다.

정애리 권사는 "세상에 있는 직업 중에 '장미'라는 소리를 듣는 것들이 있다. 장미는 해당분야에서 최고 권위가 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이왕 예수를 믿을 거라면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예수장이'가 되어 살고싶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인대학원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현인대학원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Habr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wgkpc.org</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30 EM, 대부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h3>열매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213)380-0071, Cell: (213)215-8523 3980 Wilshire Blvd., 1505, Los Angeles, CA 90010</p>	<h3>남가주사망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집문예배: 오후 1:20 영양예배 (영소-KOC, 캠퍼스특별예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집문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ithersburg, CA 90248 www.dhpc.org</p>	<h3>등문교회</h3> <p>담임목사: 김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wgkpc.org</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2인칭: 박스, 김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정영희</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새벽 6:00(토)</p> <p>Tel: (626)793-0880, Ondo,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80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다문화성명)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j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nim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화-토)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Ave., Torrance CA, 90505</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7:00(영양)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영양) 대학원예배: 오후 1:00 영어예배: 오후 1:00(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p> <p>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3>얼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명기도회: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월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다문화성명)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주요절기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2:00(다문화성명) 금요성명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6:00(토) 은혜제자훈련: 365일 24시간 온</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3>좋은마음교회</h3>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9-9259 Fax: (714)649-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토)</p> <p>www.cornestonetv.com / e-mail: pastor@cornestonet.org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랜스선교회</h3> <p>담임목사: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문)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p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일반대 평가자대 신학대 일률적용 안돼”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독교대학들 ‘후폭풍’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와 후폭풍이 기독교대학들에도 거세다. 한세대 성결대 부산장 신대 고신대 등은 기독교대학 중 최고인 B등급을 받아 고무된 상태다. 반면 정부의 재정지원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D+와 D, E등급을 받은 대학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한 채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교육부는 31일 기독교대학 중 루터대와 서울기독교대를 E등급, 한영신학대를 D등급으로 평가했다. 나사렛대와 그리스도대에는 D+등급을 부여했다. E등급은 정원을 15%, D와 D+등급은 정원을 10% 감축해야 하며 장학금 등 정부의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되거나 줄어든다.

서울기독교대는 이번 평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의제기를 통해 학교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강평 서울기독교대 총장은 “이번 평가에서 0.17점이라는 근소한 차이로 E등급을 받았다”면서 “여기에는 (학 교운영 등의 문제로) 행정제재를 받아 0.286점이 깎인 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는 2012년 행정처분 받은 내용이 중복 처리된 것으로 교육부에서 행정착오를 한 것”이라며 “31일 교육부에 이의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작은 대학이지만 80년 동안 다음세대 교육에 최선을 다하며 줄

임생활을 베풀었다”면서 “현재 학교는 빛이 전혀 없는 상태이며 운영도 정직하게 이뤄지고 있다. 졸업생들을 위해서라도 학교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

루터대는 대외 입장 표명을 자제하며 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김철환 루터대 이사장은 “우리는 힘없는 대학”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민감한 문제여서 어떻게 대처할지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다. 루터대 관계자는 “루터대는 기독교한국루터회에서 설립한 대학”이라며 “학교가 없어지면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밖에 없는데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영신대는 이번 평가가 신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대학과 동일한 지표로 이뤄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하지만 평가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대학 역량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영신대 기획실 관계자는 “신학대들은 전국신학대학협의회 회원대학 등 별도의 그룹으로 평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이는 차후에 대응할 문제이고 당장은 교육부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학교 발전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신대는 내부 시스템 개선과 경쟁력 있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을 논의

하고 있다.

정부재정지원이 제한되는 등급 중에서는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은 나사렛대와 그리스도대는 미비점 보완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리스도대 기획처 관계자는 “교육부 평가에 문제가 적지 않아 이의제기도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와 별도로 인력 구조조정 등 개혁을 추진하고 교육부 컨설팅을 통해 그동안 놓친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사렛대 관계자는 “정량평가에선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정성평가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향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학생과 달리 국가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신입생들에 대해선 학교 차원에서 지원대책을 마련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D등급 우리가 제기했던 총신대는 정원을 7% 감축해야 하지만 정부의 재정지원은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는 C등급 평가그룹에 해당하는 조치다. 총신대는 정량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도 분규대학 등의 이미지로 인해 정성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D등급 이하로 분류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김영우 총신대 총장은 “그동안 대내외적으로 우려했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해 온 것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면서 “앞으로 부실대학, 분규대학이라는 부정적 이미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 정체성 바로잡아야’

한국교회연론회 역사교과서 관련 논평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1일 ‘역사 교과서, 국가 정체성 바로잡는 국정 교과서로 가야’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전환해 발행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연론회는 “역사 교과서를 국정 체제로 유지해 오다가 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한다는 취지로 2007년부터 검·인정 체제로 전환했지만 이념적 대립을 자초하는 발목을 주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에서 직접 제작한 것이지만 검정 교과서는 민간에서 개발해 국가 검정을 통과한 것, 인정 교과서는 민간이 개발한 것을 국가가 인정하고 사·도 교육감이 승인한 것이다.

교회연론회는 “검정이나 인정 역사 교과서로 공부하면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학생들이 겪어야 할 혼란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역사 교과서는 특정의 이념이나 학파의 모든 주장을 들어야 하는

한가한 장이 아니다”면서 “민간 주도 검정체제에선 다양한 의견 제시가 가능하겠지만 피교육자 입장에서는 혼란만 경험하게 되므로 결국 피해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의 쟁점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정오(正誤) 문제도 있지만, 소위 사관(史觀)의 문제가 매우 크다”며 “역사 교육이 자라나는 세대의 가치관과 국가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교회연론회는 “정부는 일부가 주장하는 편향적 학술들을 배제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교육하는 올바른 국정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일에 실수함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교회연론회 미국 동성애 현황 논평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4일 ‘자칭 인권의 나라 미국, 종교와 양심의 자유 탄압을 받을까 염려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하고 미국이 인간의 기본권 억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교회연론회는 “동성간 증명서 발급을 거부해 법정 구속된 김 데이비드 법관 서기” “동성 커플의 결혼 주례 요청을 거부했다가 벌금형에 처

해진 법 목사’ 등 최근 미국 사회에서 벌어진 동성애 관련 처벌 논란을 언급하며 “미국이 극소수인 동성애자들을 보호하고 신앙적 신념에 의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다수 국민의 생각을 혐오범죄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이러한 형사처벌 행위는 종교와 양심,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반인권적 행위이며 성경적 가치관에 기초한 독립선

언문과 수정헌법을 유린하고 미국이 추구해오던 가치관을 저버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연론회는 “동성애는 성적패락을 위해 성적자기결정권을 남용하는 방종의 행위일 뿐”이라며 “양심적인 다수의 국민을 법으로 탄압하는 것은 법의 황포이며 성경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성(城) 멸망의 전조를 밟아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동성애자 입장만 강조한 중·고 교과서

“성적 소수자 취업 등 차별” 동성애자 논리 그대로 기술

현재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명시한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없다. 남자 동성애자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인이고, 이들에게 감염이 집중되고 있지만 현행 ‘보건’과 ‘생활과 윤리’ 등의 교과서는 이 같은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를 통해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알려주어서 에이즈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 에이즈 감염 위험성 적시해야

◇2000년대 이후 청소년·청년 에이즈 감염자 급증=국내 청소년 에이즈(HIV) 감염자는 최근 급증하는 추세다. 질병관리본부의 ‘2014년 HIV/AIDS 신고 현황’에 따르면 내국인 15~19세의 남성 HIV 신규 감염자 수는 2000년 2명, 2005년 15명, 2008년 20명, 2010년 26명, 2013년 52명, 2014년 36명으로 늘어났다. 2000년 이전에 청소년 에이즈 감염자가 거의 없었지만 2000년 이후 최고 18~26배 증가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동성애를 미화하는 대중매체와 교과서 등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동성애자들의 입장만 반영돼 있는 교과서를 수정하고 학생들이 올바른 성 정체성을 갖도록 권장하며 에이즈 감염의 위험성을 알려야 한다고 촉구한다.

김원평 부산대 교수는 “동성애를 미화한 영화와 드라마, 동성애를 옹호하는 학생인권조례와 교

과서 등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동성애의 유혹에 쉽게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로 2004년 동성애를 조장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에서 제외됐다”며 “그 후 동성애자들의 인터넷 사이트가 활성화됐고 청소년들이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쉽게 동성애를 접하게 됐는데 그 결과 청소년 에이즈 환자가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동성애로 인한 에이즈 감염 위험성 교과서에 기술해야=청소년들의 에이즈 감염을 막으려면 교과서를 통해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성을 정확하게 알리는 게 시급하다. 과거 ‘교련’ ‘보건’ 등의 교과서에는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에이즈의 감염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술됐으나 최근 교과서에선 모두 삭제된 상태다.

현재처럼 동성애자들의 입장만 옹호하고 있는 교과서는 동성애

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심어줄 수 있다. 동성애자들의 시각에서 기술된 교과서들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에만 주목한다. 교학사가 발행한 중학교 ‘도덕’(2015년) 교과서는 인간 존엄성과 인권 부분에서 차별대상에 동성애자를 포함시켜 그림으로 소개하고 있다. 한효관 건강한국회위원장인 국민연대 사무총장은 “동성애는 성별, 인종 등과 같이 가치중립적이거나 모든 국민이 공감하는 차별금지 사유가 아니다”면서 “동성애를 가치중립적인 차별금지 사유인 것처럼 교과서에 소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성길 전 연세대 교수는 “학생들이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하려면 최소한 동성애 문제점과 부정적인 면 등도 동등한 분량으로 공정하게 기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건 등 교과서 집필자들이 집필기준에 따라 교과서를 만들고 있지만 어느 정도 재량권도 갖고 있다”면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면 집필자들이 반영하기도 하지만 역사교과서처럼 강제로 (에이즈와 동성애의 연관성 등을) 신게 할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동성혼 합법화 21개국뿐 75곳선 법적 죄 규정”

기독교미래연구원 세미나 ‘통일한국과 동성애’ 주제

기독교미래연구원은 7일 서울 국회의원회관 헌정기념관에서 ‘통일한국과 동성애’를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동성결혼 합법화를 저지하기 위한 한국교회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전 세계 200여 국가 중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국가는 21곳이며, 동성애를 법에 의해 죄로 규정한 국가는 75곳이다”면서 “동성결혼 합법화는 단순히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며 전통적 성윤리와 도덕의 붕괴, 가정파괴로 이어지고 동성애가 죄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불법 집단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사회적으로 동성애자들이 증가하면 에이즈 확산과 공공보건 비용 증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면서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

갑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문구를 게재하듯 ‘동성애로 인해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는 식으로 동성애와 에이즈의 상관관계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영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변호사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은 개인적·사회적으로 크게 유해하므로 법률적으로 보호·조장·권장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커플은 소수자가 아니라 부도덕한 행위와 불법적 혼인을 선택한 성도덕 및 혼인법률 위반자”라고 비판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동성애와 같은 부도덕한 욕구·감정에 대해 법적·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인 감정·욕구·성향에 따른 다른 모든 행동도 면책해줘야 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동성결혼 합법화는 법원의 결정사항이 아니

라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을 개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동성결혼이 불법임을 논증할 수 있는 양심적 헌법학자들이 많이 나오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법과 동성애’를 주제로 발제한 최병규 기독교미래연구원장은 “북한 가족법상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로만 성립되지만 북한 사회에도 동성애가 있다”면서 “북한은 동성애적 행위에 대해 남한과 달리 공동생활 질서 침해라는 측면에서 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은 축사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대다수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고 출생률이 낮아지는 등 악영향을 가져올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정책·예산 등에서 도움 일 있더라도 끝까지 돕겠다”고 약속했다. 소강석 한국교회 동성애대책위원회 본부장은 “동성애로부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한국교회를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예장합동 목사부총회장 후보 ‘3인3색’ 정견발표

장대영-신대원 수 엄격 선별

김중준-교회학교 부흥 등

김선규-미자립 회자 지원확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선관위원회(위원장 박신범 목사)는 1일 대전 중구 계룡로 대전중앙교회에서 ‘제100회 총회임원 임후보 정견발표회’를 열고 임원 후보자들의 출마 조건과 공약을 청취했다.

정견발표회는 선관위의 후보자 약력 소개에 이어 후보자들이 공약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후보간 토론이나 질의응답 시간은 없었다. 후보 등록이 정견발표회 3일 전에야 최종 확정됐던 목사부총회장 직위의 정견발표에 총대들의 관심이 쏠렸다.

장대영(64·수도중앙교회) 목사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으로 변질되어 가는 예배의 회복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며 “인성과 감성주의 위주로 진행되는 잘못된 예배의식을 없애고 예배의 모범을 세워가겠다”고 밝혔다. 장 목사는 “무분별한 교단 영입으로 인해 교단의 보수정통 신앙이 오염됐다”며 “신학대학원 교수를 철저히 선별해 보수정통 신학사상이 목사 후보생들에게 계승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중준(60·꽃동산교회) 목사는 “장자교단이라는 이름이 부끄러울 정도로 총회 위상이 추락했다”면서 “타락한 정치 행태를 청산하고 하나

님 앞에 쓰임 받는 총회를 위해 개혁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목사는 “1970-80년대 한국교회가 놀랍게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교회학교의 부흥이 있었다”며 “교회학교 부흥 운동을 통해 다음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김선규(68·성현교회) 목사는 “칼뱅주의에 입각해 교단 신학의 정체성을 공고히 다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총회신학 기관의 전문성과 독립성 확립을 강조한 김 목사는 “교회학교 교육뿐 아니라 장년과 목회자 재교육을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 총회가 교육의 백bones를 선도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총회 주관으로 미자립교회 목회자의 생활비 지원 정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예장합동 선관위는 2일 대구동신교회, 4일 서울 총현교회에서 지역 총대들을 위한 정견발표회를 가졌다.

총회세계선교회 임원 임기 1년으로

예장합동, 이사회 정기총회서 정관 개정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세계선교회(GMS·이사장 김재호 목사)는 3일 경기도 화성시 월문길 GMS 선교센터에서 ‘제18회 GMS 이사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GMS 이사회는 모든 임원의 임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도록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관을 수정했다. 단 이사장은 정책 이

행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 2년을 유지하기로 했다. 또 현재 20명 이상인 선거관리위원은 13명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사회는 이날 부사장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오는 14일 예장합동 제100회 총회에서 GMS 이사회 정관과 규칙을 추진 받은 이후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GMS 임

시총회에서 통과된 정관이 예장합동 제99회 총회에서 추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명예이사장 박무용 목사는 이날 개회예배 설교에서 “내·외부적인 아말렉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생각과 마음이 흩어져서는 안 된다”며 “GMS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이어 세계 복음화를 위해 선교사 파송에 헌신해 온 19세의 공로교회와 GMS 소속으로 20년 근속한 43명의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축했다.

건물 급 리스

저희 교회가 보다 넓은 교회당으로 이사하게 됨에 따라 현재 사용건물을 급하게 리스 하고자 합니다. 교회당이 필요한 분은 연락바랍니다.

- ◆ 장소: 사우스 토렌스 Prime Location
- ◆ 가격: 월 2500.00(유틸리티 포함)
- ◆ 특징: 시에 종교 건물 사용 용도로 CUP 받음, 충분한 파킹랏 본당, 사무실 2개, 교육관
- ◆ 연락: 310)749-0577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은 45개국에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 (6)



전호진 박사
(미얀마개혁신학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ISIS의 위협

미국 전 CIA국장 마이클 모렌은 최근 타임지에서 IS가 전 세계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진술한다:
 “IS는 빈 라덴이 이미 디자인한 것의 최신판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 심각한 도전이다. 1)중동 국가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 이들은 이미 이라크와 시리아 많은 영토를 점령하였다. 북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도 이미 이들의 영향권에 있다. 소말리아의 알샤바브는 이들의 산하 조직에 불과하다. 2)90개 국가의 약 2만 명의 청년들이 시리아와 이라크로 가서 이 조직에 가담, 전투를 하고 있다. 이중 3,500명에서 5,000명은 서구국가, 캐나다

없다. 시리아의 반이들에게 점령당하고 말았다.
 이슬람 테러의 위협은 동남아 일부 국가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작년도 알 카에다 그룹은 무슬림 인구가 1억 명이 넘는 인도에서 힌두교와 무슬림간의 충돌이 찾아지자 인도도 테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여 인도정부를 긴장시키고 있다. 싱가포르 청년도 ISIS에 가담, 싱가포르 사회를 놀라게 하고 있다(5월 말 현재).
 이들은 소셜미디어를 너무나 잘 활용한다. 전 세계의 소셜미디어를 통하여 홍보를 하고 구라 파나 아시아 아프리카로부터 대원들을 모집한다. 작년에도 한국의 한 청년도 터키에서 시리아나 이라크로 넘어간 것으로 보도됐다.

이 암살단은 이란에서 시작되어 시리아, 레바논 등지로 확산되었는데,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 존속하였다. 이들은 주로 시리아에서 나온 자들로 이슬람에서는 이단중의 이단으로 취급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사상은 주류파 수니 이슬람에서 나온 것이다. 이들은 주로 십자군들을 대상으로 암살활동을 한 것으로 말하는데, 그러나 십자군보다는 이슬람의 엘리트들, 통치자들, 군주들, 장관들과 장군들이 암살 대상이었다. 그들의 무기는 단도로, 목을 찢고 절대 도망하지도 않았고, 잡혀도 목숨을 구걸하지 않았다. 암살하다가 자신이 살아남은 것은 사명에 실패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점에서 중세 이 암살단은 현대 자살폭탄

고 이슬람 확장과 이슬람 과격주의 테러를 은밀하게 지원한다. 한국의 무슬림 선교사들은 터키나 사우디 정부의 지원을 받는다고 한다.
 살라피즘 세력이 러시아와 구라파까지 위협한다고 2년 전 구라파 언론들이 크게 보도한 적 있다. 수 년전 러시아의 타타르 자치주에 살라피스트 테러리스트가 온건 이슬람 지도자를 암살한 것을 보도하면서 비교적 온건한 무슬림 지역에 과격 이슬람 세력으로 인하여 이제 러시아가 불안하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하였다. 2012년 6월 독일 전역에 1000명의 경찰이 투입되어 살라피 무슬림들의 가옥, 학교 및 모스크를 수색했다.
 2년 전 독일 경찰은 독일에서

IS, 90개국 2만 명 가담...자국에 돌아가 테러, 알 카에다의 연장 이슬람 테러는 13세기 Assassins부터...극단주의는 살라피즘에서

다, 호주, 미국에서 온 청년들이다. 구라파, 미국에서 온 이들은 본국에 돌아가서 테러행위를 자행한다. 2014년 프랑스의 한 대원은 브뤼셀의 유대인 3명을 살해하였다. 미국에서는 이미 수차례나 이들에 의한 테러가 발생하였다. 3)이 조직은 알제리아, 리비아, 이집트, 아프가니스탄에서 더 많은 대원들을 확보하고 있다. 얼마 전 리비아 해안에서 이집트 폭탄신자 21명을 참수한 것도 이들도이다. 4)더욱 심각한 문제는 ISIS의 메시지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청년남녀들을 과격한 방향으로 몰고 가서 시리아와 이라크로 가지는 못하지만 이들과 합류하려고 하거나 지원한다. 이들을 언론들은 외로운 늑대라고 부른다.”
 정보국장은 미국이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강조한다.
 ISIS는 5월말 시리아의 중요한 유적지인 팔미라를 점령하고 무려 300명의 주민들을 살해하였다. 팔미라는 중동에서 사마의 진주라 불리는 고대 로마 문화의 유적지이다. 로마의 원형 극장이 그대로 남아있는 유일한 곳이다. 다행히 이들은 아직 유적지들을 파괴하였다는 뉴스는

일본에서도 두 청년이 작업이 없어서 지원하려다가 일본 경찰에 잡혔다. 이들은 알 카에다보다 언론 플레이를 잘한다. 이들은 다중언어로 선전하는 알 하야트(al-Hayat)라는 선전매체를 운영하면서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 미디어를 최대한 활용한다.
 이슬람 테러의 원조

우리는 먼저 이슬람 테러는 최근에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중세시대에 이미 테러의 원조가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영어 단어 assassin은 자객 혹은 암살자를 의미하는데, 13세기 이란, 이라크, 시리아에 이슬람 암살단 조직인 Assassins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테러그룹은 시리아 암살단(Syrian Assassins) 외에 본부는 이란에 있었는데, 영어 명칭은 Assassins order(암살단수도원 혹은 암살단)이다. 이 테러조직의 전문가는 버나드 루이스로서, 그의 저서 The Assassins: A Radical Sect in Islam은 80년대 독일어 프랑수아, 일본어 등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었다.

의 원조이다. 다만 차이는 암살단원들은 무차별 죽이거나 원격 조정이 없었고 납치는 없었다.
 이슬람 극단주의 원조

이슬람 테러그룹의 원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시작된 살라피즘이다. 살라피즘 이슬람의 원리를 그대로 믿고 실천한 초대 무슬림들을 의미한다. 이슬람 20세기 모든 이슬람 과격 테러 그룹의 원조는 살라피즘, 사우디의 와하비즘(1792년 시작)이다. 현대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 왕가와 “칼의 종교”인 와하비파의 합작이다. 이 두 과격 이슬람은 본래의 이슬람으로 돌아가자는 원리주의 사상이다. 살라피즘의 자들은 이슬람교의 선지자 무함마드를 귀상으로 삼고 사리아를 철저히 지킨다. 이슬람은 코란의 원리대로 가르칠 때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살라피즘은 정적인 살라피즘, 정치적 살라피즘, 지하드 살라피즘으로 분류한다. 사우디의 살라피즘은 정적이다. 그러나 사우디는 테러 자금과 인원을 공급하는 이종적 국가이다. 자유세계에 속한 것 같으나 미국을 등에 업

인한 살라피스트 테러리스트 수색작업을 벌였다. 한 독일의 언론은 과거에는 나치즘(Nazism), 다음은 공산주의를, 이제는 살라피즘(Salafism)이 독일을 불안하게 한다고 하였다.
 IS는 알 카에다의 연장이다. 빈 라덴은 190년대 이집트에서 시작된 무슬림 형제단의 영향을 받고 알 카에다를 조직, 아프간에 참여하였고, 아프간 전쟁이 이슬람 테러운동을 확산시키는 계기가 된다. 무슬림형제단은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의 시작이다. 원리주의(혹은 근본주의: fundamentalism)는 1920년대 말 미국에서 신학적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논쟁에서 시작된 용어인데, 다른 종교의 원리주의 운동에도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광고업계도 두 원리주의 운동은 거의 동시대에 일어난다. 하지만 기독교 원리주의 운동은 순수한 성경적 기독교의 원리를 파수하는 것이고 비폭력, 비정치적이다. 그러나 이슬람 원리주의 운동은 처음부터 정치와 폭력 사용을 정당화하였다.
 이메일: hjjun01@hanmail.net <계속>



파푸아 뉴기니

사랑하는 동역자님들께, 그동안 평안 하셨는지요? 유난히도 고국의 여름이 덥고, 또 힘들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도 이일 저일로 분주하게 지내다보니 어느새 몇 달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세월이 어찌 이런데 빨리 지나가세요!
 이 나라 거의 모든 지역, 특히 고산지대는 지금 두 달이 넘도록 가뭄이 지속되고 있어, 자급자족하며 지내고 있는 농작물이 메말라가고 있고, 강물이 말라서 생물이 사라져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 뿐 아니라 빗물을 식수로 하고 있는 선교센터에서 지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힘들게 지내고 있는 요즘을 읽니다. 뉴스에는 11월까지, 아니 내년 3월까지 엘레노 현상으로 인한 가뭄이 지속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 더욱 기도하게 됩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 비를 주시도록 간구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몇 달 동안의 소식을 드립니다.
 -와이마 다중언어사역팀 번역자들(마틴, 우꼬, 알리, 아우아, 모레아, 마오니), 성경번역자 훈련(TTC) 제2과정(4월29일-6월3일)을 잘 마치고 각 부족(와이마, 나라, 가바디)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이번 훈련과정에서 세 부족의 창세기(11장-21장)를 점검하고 이들을 멘토링하는 김남수 선교사에게 감동 주셔서 잘 감당해 하셔서 감사하였습니다. 이들은 각 부족에 흩어져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중보의 끈을 계속 잡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난 6월14일에는 예정대로 나라부족의 마가복음 봉헌식을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온전히 주께 영광 돌리는 시간으로 인도 하심에 감사하였습니다. 봉헌식 하루 전날, 부족마을에 초상이 나서 매우 즐거운 봉헌식은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봉헌식을 취소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하였고, 자기들의 말로 된 하나님 말씀을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의 감동어린 모습을 보는 기쁨의 시간을 누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서 지난 8월10일-14일, 중부지역 번역자(현지인) 지도자 수련회는 은혜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세 선교단체의 연합 수련회였는데 이

번에는 부족 마을에서 17부족에서 온 지도자들 80여명과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이나라 연합교회의 지도자 목사님들을 강사로 초대할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인수인계를 받으며 6월1일부터 부대표(언어사역부)사역을 시작한 이덕신 선교사는 지금까지 은혜로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7월, 8월 분주한 일정(지역대표회의, 봉헌식 참석 등)을 잘 소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다양하게 진행되는 이나라의 언어사역을 위해 진행되어지는 회의 참석과 행사참석을 위한 출장으로 지치기 쉬운데 분주한 일정가운데 영육간의 균형을 잃지 않고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나라부족의 아우아, 알리 두 형제가 본부로 올라왔습니다. 이어서 가바디, 와이마 부족의 번역자들이 본부에 올라옵니다. 이번 9월, 10월 두 달 동안 이들이 본부에 와서 약 한달씩 집중해서 번역 점검 준비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마을생활에서 집중하기 힘들어 진도가 잘 나가지 않은 부분을 보충하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는데 건강으로 지혜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들을 번갈아 가면서 돕는 김남수 선교사에게 같은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김 선교사는 동시에 11월에 있을 동류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와이마부족의 누가복음을 자문 점검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몇 달이 넘도록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창조주의 섭리,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그리고 은혜를 만끽하게 됩니다. 동시에 영적인 가뭄으로 메말라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목상하게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을 데릴사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귀한 동역과 저희들의 작은 섬김이 모두어저져서 가뭄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성령의 역사가 이곳 파푸아 뉴기니의 와이마, 나라, 가바디, 도우라 부족 그리고 아직도 한 구절의 말씀도 자기말로 가지고 있지 못한 200여 종족 가운데 지속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분 한분에게 독수리 날개로 업어 인도하시는 은혜로 주님의 향기를 발하는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몇 달간의 귀한 헌금과 기도의 동역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남수/이덕신 선교사
 ns-ds.kim@sil.org.pg

하나님의 구원계획 GPS CENTER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영어판, 중국어판 책도 판매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다니엘, 요한계시록, 성경 세미나

도서 주문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DYNAMICS 다이내믹스

MARTIAL ADRENALINE ZONE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타월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배너 교회배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www.laguesthouse.com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 건너편)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하나님의 구원계획 (6)



라훅채 목사
(뉴욕제자들과교회 담임)

2)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있으시기
를 원하시어 이 세상에 인간의 옷
을 입고 오셨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은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만
왕의 왕으로, 심판자의 모습으로 임
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이시며, 새언
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모든 구속
사역을 이루시었다.

3) 예수님의 사역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
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직접 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사98편 전
부), 인간의 시간표를 구원 계획을
만드사 인간의 시간 안으로 임마누
엘하신 예수님의 이 땅에 우리와
같이 계시기 위해 먼저 오셨고(롬
8:32-33), 그 예언의 말씀대로 나
타나셨다(마1:23; 사7:14; 미5:2).
BC가 끝나고 AD가 시작될 즈음
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마
1:23; 눅1:1-20).

예수님은 베들레헴(미5:2; 마
2:6) 말구유에 오시고, 동방박사들
로부터 경배를 받았다(마2:1-17).
그 후 그곳에 헤롯왕은 유대에 왕
이 나셨다 하므로 그대를 표준하
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사내아이
를 다 죽이므로(마2:16), 아기 예수
님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다(마
2:13-23).

헤롯이 죽은 후 예수님은 나사렛
에 돌아와 어린 시절을 보내시고,
성년이 되어 세례를 받으신다(눅
3:21-22). 그때에 성령에게 이끌
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가신다(마4:1-11).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처음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을 베푸셨다(요2:1-
11). 그리고 첫 번 예루살렘 성전에
도착하여 성전 안에 사두개인들이
제물을 판정하여 관리하고 파는 것
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성전은 기

도하는 집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내
쫓았다.

밤에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구
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
예수님께서는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요3:1-21) 하나님 나라
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수가성
에서 만나신다(요4:1-42). 나사렛
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이사야
61장1-2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
씀이 내게 임하셨다고 하셨을 때
(눅4:17-18), 모인 무리들이 말하
기를 내가 하나님이라고 배척하므로
(눅4:16-30) 예수님은 갈릴리로 이
동하신다.

이때부터 갈릴리에서 12제자들
을 부르시고 사역이 시작된다. 그
12제자들은 다데오, 빌립,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 마태, 시몬 베드
로, 도마, 바돌로매, 야고보, 가롯유
다를 부르시고, 많은 말씀을 하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
모를 고치신 후 폭풍을 잠재게 하
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며 금식과
사랑의 도를 전하신다.

또한 씨 뿌리는 비유들로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를 많은 기적
과 함께 말씀을 전하지만 12제자들
은 하나 같이 천국보다 세상만 바
라보는 자들이었다. 12제자들은 로
마로부터 해방되기를 기다리는 자
들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키워 마
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을
통해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는 말

씀들을 전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인
을 나타내시었다(마16:21-23). 예
수님을 따르는 길을 가르치시고(마
16:24-28)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
같이 희어졌더라(마17:1-3).

이러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난 후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돌아오시는
데 그때는 수전절이었다. 이때 유대
인과 무리들이 많은 이적을 행하시
는 예수님을 시험코자 하더라 무리
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서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
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지금 이 여
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
니까? 묻는다.

예수님은 잠시 후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신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
부터 돌로 이 여인을 쳐라 말씀하
실 때(요8:7) 하나 돌씩 많은 무리

씩하시되, 너의 정력과 너의 생각
과 육적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을 하
라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훈련을 시
킨다.

이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은 나사로가 있는 무덤
으로 가서서 나사로야 지금 나오라
하니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것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더라.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유대지방
에 다닐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을 기다렸다. 유대인으로부터 싫어
함을 받은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
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
람들 앞에 나갈 수 없으니 나무에 올
라가 최고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 삭개오가 정이 구원
받는 일이 일어났다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예루살렘
에 도착하여 예비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상징하는 나무요 그들의 믿음이 없
음을 한탄하시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
시고 다시 베다니에 가셨다. 하루
더 쉬시고 다시 베다니에서 예루살
렘으로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마
가 다락방에서 최후만찬을 하신다.
이 성만찬의 의미는, 하나님과 인
간이 하나 되는 일을 예수님이 임
마누엘로 오셔서 다 이루어주시는 것
이다.

예수님은 최후만찬을 끝내신 후
에 겻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다.
이 모든 기도의 일을 내 뜻이 아니
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기도하시고 나오실 때 가롯유
다의 밀고로 군병들이 와서 가롯유
다가 키스한 예수는 포박할 때 11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홀로 예수님
만이 군병들에게 이끌리어 대제사
장의 집을 향해서 갈 때 때리시 베
드로는 한 가담의 미련이 있었다.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로마정부
를 무너뜨리려던 내가 좌위정이나 우

도는 물에 손을 씻고, 그들에게 예
수를 못 박게 내어주라고 했다. 이
때가 금요일 아침 유대시간으로는
첫 시(로마시간은 아침6시)에 재판
이 끝나고 빌라도 재판 장소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아침 3시(로
마시간 오전9시)에 십자가에 못박
고 제6시(로마시간 12시)에 온 땅
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
속하였다(막15:33).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지
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
다(눅23:34). 내가 진실로 네게 이
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
에 오르리라(눅23:43). 나의 하나
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27:46). 내가 목마르다(요19:28).
다 이루어졌다(요19:30).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
다(눅23:46).

성소 휘장인 위에서 아래로 갈라
짐으로 예수그리스도를 통해서 언
제 어디서라도 하나님께 구할 수
있고, 죄 사함을 얻을 수 있다. 일
찍이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우리 모
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 우
리 주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히
12:24) 다 이루어주셨다. 또 확증하
여 주셨다(계5:9-10).

장사 되신 예수님: 저물었을 때
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기를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
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
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
하여 앉았더라...(마27:57-66).

장사된 지 3일 후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나셨고, 너희보
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
서 너희가 보으리라 하라 보라 내
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마28:7-10).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
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싸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판 곳에 싸던 대
문 놓여있더라 그때에도 무덤에 먼
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
고 믿더라(요20:1-10).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요20:11-
18). 부활은 우리들의 소망이요, 이
렇게 부활 신앙으로 달려감을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메일: Gpscenter@gmail.com
(다음호에 계속)

하나님은 인간 구원계획을 세우시고 인간의 시간 안으로 임마누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그리스도, 예언대로 오셔서 사역, 부활 실현

들이 돌을 땅에 내려놓고 다 물러
갈 때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
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다.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 계실
때에 무리들이 찾아와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 네 아버지이면 보여 달라
한다. 네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
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
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8:19). 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
손이나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하시고(요8:33), 그러면 너희들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니 나도 아브
라함 이야기를 하겠다, 하시며 나는
오래전에 이미 아브라함을 보았느
니라 하니 이때 이 말씀을 들은 무
리들이 말하기를 너는 지금 50세도
아니 되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
았느냐?(요8:57)고 묻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 할 때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베되아로 물러가실 때
많은 무리들이 따르므로 예수님께
서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거든 너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 십자가를 내가 고쳐 따라라 할
때 많은 무리들이 물러가게

했다. 이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
하시되 너희도 나를 따르겠느냐 하
시니라.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

하루 많은 무리들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길에 겹옷을 벗어 깔
고, 어린 나귀 위에 겹옷을 벗어 놓
고, 다른 이들은 밧서서 맨 나무 가
지를 길에 퍼며 호산나 호산나 나
를 구원하소서(눅9:9) 하더라, 많은
무리들이 따르니라.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실 때 성
전 안에서 사두개인들이 제물들을
드림 비둘기, 양 등을 검사하여 많
은 돈을 서민으로부터 착취함을 보
시고 예수님이 다시 장사하는 자들
을 다 성전에서 내어보내니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물어볼 때 예수님
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삼일 만에
일으키리라 하시니, 사두개인과 제
사장들과 많은 무리들이 이 성전
은 오랜 시간 동안 지어진 성전인
데 내가 삼일 만에 일으킨다고 하
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 한다.

그들은 요반에는 예수님이 오
면 꼭 죽으리라 마음을 먹고 결정
을 하였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많
은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은 베다
니로 가셨다.

그 다음날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으로 가실 때 무화과 나무가 무성
한 것을 보시고 그 나무로부터 무
화과 열매를 구했지만 찾지 못하
므로 그 나무를 저주하니 그 나무는
잎이 즉시 바로 마르니라. 이 말씀
은 무화과나무는 특히 이스라엘을

위정이 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멀
리서 따라가고 있었다.

이제 대제사장의 집 뜰에서 베드
로는 모닥불 옆에 앉아서 예수님이
심문을 받는 것을 보고 있을 때 마
침 닭이 3번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
님을 부인한 것을 한탄하며, 그 자
리를 떠나갈 때 예수님은 멀리 가
는 베드로를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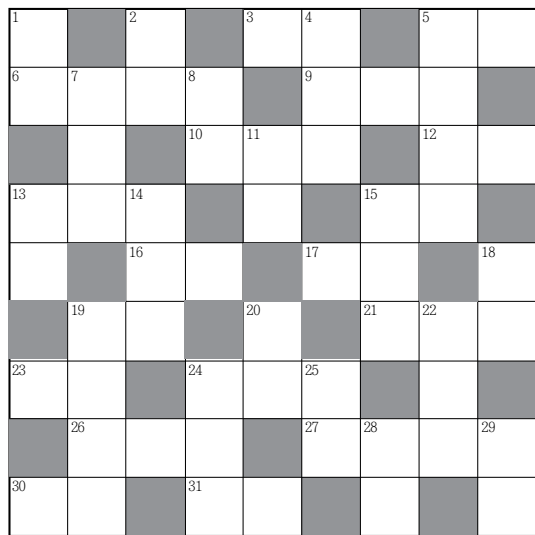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에게 재판
을 받고, 이들의 이야기는 이번에는
꼭 죽어야 된다는 결론 후 대제
사장들은 이 재판을 끝내기 위해서
는 빌라도에게로 보냈으나 다시 빌
라도는 헤롯왕이 있으니 하면서 예
수님을 헤롯왕에게 보냈다. 예수님
은 아무말씀도 아니 하시므로 헤롯
왕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낸다.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섰으나, 빌
라도는 말하기를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니 이들(예수) 때려서 내
놓으라 했으나 유대 군중들은 아
우성을 치면서 바라바를 내놓고, 예
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
이었다. 간곡하게 이제 빌라도가 이
야기한다. 예수는 아무 죄가 없으니
만약 이자(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
히면 누가 그의 피값을 담당하리요
(마27:25).

이때 유대인과 무리들이 그 괴물
"우리에게로, 우리 자손들에게로
돌리라"고 아우성이었으므로 빌라

십자말 • Cross Word (9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3. 참혹한 실패(렘48:5).
5. 남의 나라로 몸을 피하여 옮김(삼상29:3).
6. 찬송가 494장. OOOO 영리나...
9. 권세와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막14:62).
10. 다시 갖게 한 사람(웃4:15).
12. 받들어 공경함(에1:20).
13. 로마 총독이며 예수님을 고난에 빠트린 자(눅23:1).
15. 흑독한 짓으로 남을 괴롭힘(히13:3).
16.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진 쳤던 곳(민33:26).
17. 연못 주변(스3:15).
19. 형제 가운데 나이가 자기보다 많은 사람(창33:10).
21. 뱀이 부리는데 쓰이는 물품(출33:6).
23. 침대(욥7:13).
24. 갈웃의 가슴에 대는 구리조각(사59:17).
26. 큰일과 작은 일(삼상20:2).
27. 고모의 아들이나 딸(삼사).
30. 솟발을 담아두는 그릇(슌12:6).
31.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조미료(민11:5).

<세로 푸는 열쇠>

1. 행동이 음란하고 방자함(단3:29).
2. 다른 것이 없는 마찬가지의 상태(사24:2).
4. 수령이나 승자가 가지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사14:5).
5. 종작없이 스스로 잘난 체 함(시38:16).
7. 에브라임의 딸(대상7:24).
8. 생석회와 소석회의 총칭(신27:2).
11. 직을 기습하기 위하여 군사를 숨겨 둠(사20:37).
13. 라헬의 시비, 야곱의 점(창30:5).
14. 구브로와 함께 연결된 헬라의 국가(대상1:7).
15. 에스라와 같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요한안의 부친(스8:12).
18. 성질과 됨됨이(벧1:4).
19. 우리는 하나님의 OOOO 지음을 받았다(약3:9).
20. 참된 마음(렘3:10).
22. 앞날의 일(사48:3).
24. 유다왕 여고나의 7 아들 중 하나(대상3:18).
25. 조심하라고 경계하여 타이름(말1:1).
28. 한평생. 죽을 때까지(눅1:75).
29. 마음마다(에9:19).

십자말 정답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웅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덴버에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p>	<p>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8691, 267-471-7777 Fax: (610)222-8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양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p>	<p>벤델교회 주일 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 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 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한): 오전 1:45 수요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유지, 유년부: 오전 10:00</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년부: 오후 1:30 홍콩부흥회: 오전 10시, (한): 오전 11시 유지, 유년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kinton, MA 01748</p>	<p>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08(특수경찰) 701 Scalesboro Road, Charlotte, NC 28209</p>
<p>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홍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ccseattle.org</p>	<p>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78-6876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www.omychurch.org</p>	<p>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wjccs.com</p>	<p>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계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ter Rd., Horsham, PA 19044</p>
<p>킬린노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회전예배: 오후 8:00 토요일기도회: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p> <p>Tel: (254)634-8705(H), (254)501-4933(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전 11:15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www.lj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p>	<p>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11시 수요 찬양예배: 오후 1시 수요 예배: 오후 7시 새벽 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lacomacrc.com</p>	<p>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성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p>	<p>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한-영)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96-4400 Fax: (718)89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3)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7)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오늘은 그 두 번째로 “회심의 필요성”이라는 교육의 신학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겠다.

19세기 초 현대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라 불리는 호레이스 부쉬넬(Horace Bushnell: 1802-1876)의 “기독교적 양육(Christian Nurture)”이라는 책과 이론이 소개된 이후, 더욱 명백하게 부각되어 기독교 교육을 담당했던 자들이 끈임 없이 몰아 온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교육에 있어서 회심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회심이라는 것이 반드시 그 결과물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적 양육을 하는 것으로 충분한 것인지에 대해 기독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입니.
즉 “회심”이라는 단어가 함께 연상시키는 이미지가 “어떤 성령, 부흥 집회에서 은혜를 받아 갑자기 감정적으로 폭발하며 엄청난 눈물을 흘리며 무언가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을 하여 갑자기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후 마치 이것만이 기독교인 됨의 증거이며 이것이 꼭 있어야만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게 되었던 일도 함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18세기 부흥운동적 회심의 요소들이 모두 함께 “회심”이라는 단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야기에서 교회교육

있던 듯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교회 교육을 보면, 교회 교육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신앙의 형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강조하지 못한 채, 그저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양육하고 보살피는 도덕교육(물론 이러한 차원도 중요하고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피교육자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위와 같은 현재의 교회 교육 흐름에 반작용으로 또한 현재의 어려운 현실에 대한 대안으로, 18세기 부흥운동적 회심만을 매우 강조하여 교육하는 교회들도 꽤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역자들이 먼저 회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회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여, 포괄

②회심의 필요성-교회교육은 단지 도덕교육 아닌 “신앙형성” 강조해야 인격과 삶이 변화하고 성숙해가도록 모든 교육적 방법을 동원하는 것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논의는 양분되어 한 쪽은 회심을 피교육자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으로 그 교육의 중심에 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견지했으며, 다른 한 쪽은 기독교적 양육으로도 충분하며, 이를 교육의 핵심에 놓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해왔습니다(Conversion is necessary vs Christian nurture is sufficient). 그러나 두 가지 견해들도 어느 한 쪽을 완전히 필요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부쉬넬의 경우만 해도, 기독교적 양육을 중시하였지만 회심자체를 부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가 활동했던 시기 이전, 18세기 부흥운동의 영향으로 교회교육의 중심으로 들어온 “일회적 일률적 신비적 체험으로서의 회심”에 대한 반작용으로 “기독교적 양육”이라는 측면을 강조한 책을 집필하고 그러한 이론을 정립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오늘 제가 “회심의 필요성”을 한인교회를 위한 신학적 기초로 제시하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교회 교육이 “회심”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 안에는 “회심”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는 18세기 부흥운동의 영향이 한국에 기독교를 전해준 선교사님들에 의해 한국 기독교에도 많이 있었고, 이러한 한국 기독교의 영향이 한인교회에도 전달되어 남아 있기 때문

육의 신학적 기초로서 회심의 필요성을 제시함에 있어서 그 회심이라는 것은 앞서 언급한 18세기 부흥운동적 의미의 회심이 결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명백히 살펴볼 때, 회심은 단일적이고 급작스런 어떤 순간의 체험, 순간적이고 감정적인 어떤 신비체험이 아니라, 신앙이 형성되고 일평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성숙해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전 과정을 일컫는 것입니다(Lifelong Turning to God in Christ including Faith Formation and Spiritual/Life Growth). 그리고 이는 언제나 전인격적 변화를 동반하게 됩니다. 물론 급작스런 깨달음과 신비한 체험 또한 분명히 그 과정의 일부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삶에서의 전인격적 변화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게다가 사실은 그러한 급작스런 깨달음이나 신비한 체험이 없이도 (혹은 기억에 각인될 만큼 강렬한 것이 아닌 어떠한 체험을 가진) 회심이 진행되어 가는 경우들이 훨씬 많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교회 교육에 있어서의 하나의 신학적 기초로 “회심의 필요성”을 제시할 때, 그 회심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에 대한 왜곡된 의미가 즉 18세기 부흥운동적 회심개념이 그 전부라고 여겨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되었고, 또한 이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의 회심의 필요성이 라는 것 자체에 대해 반감을 가지게 되

적이고 과정적인 올바른 이해에 기초한 회심, 그러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형성”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포함한 회심, 이러한 회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요즘의 한인교회 교육이 신앙의 형성과 그에 따른 삶의 성숙 그리고 가치적인 인격적, 삶의 변화들, 그 모두를 균형 있게 유기적으로 포함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에 더더욱, 교육에 있어서의 위에서 이야기한 회심의 필요성에 대해 교회 전체가 더욱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또한 더욱 적극적으로 그러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18세기 부흥 운동적 회심만이 신앙형성을 위한 방식이라고 여겼던 탓에, 교육에 있어서 신앙 형성 자체를 잘 다루지 못한 교회들 혹은, 이에 대한 반발로 오히려 18세기적 회심이 진정한 의미의 회심이라고 여기고 교육에 임하는 교회들 모두, 속히, 필히, 교육에 있어서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회심, 그 필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은 숙고하고, 그러한 회심을 담보하는 즉 “신앙이 형성되고, 인격과 삶이 변화하고, 성숙해갈 수 있도록” 모든 교육적 방법들을 동원하여 돕고 섬기는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회 교육의 신학적 기초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캠보디아선교사)

월 고난이 복입니다(벧전4:12-13)찬190장

우리로 죄 짓게 하려고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과 달리 시련은 우리를 연단해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의 고난에 관한 진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첫째, 불시험은 이상한 일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당연히 찾아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맹렬한 시험이 몰려와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둘째, 그때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13). 주를 위해 당하

는 고난 자체가 복이고 하늘의 상급이 준비됐기 때문입니다.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관문이기에 복입니다. 그 복을 빼앗기지 맙시다. 셋째, 영광의 영이 나타났습니다. 고난당할 때 찾아오는 기쁨은 영광의 영의 역사입니다. 고난당하는 광야교회 위에 구름기둥이 머물러 그들을 보호하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듯 성령은 항상 우리 위에 운행해 아름다운 세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난(벧전4:14-19)찬440장

고난의 유익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찾아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고난이 됩니까? 첫째, 하나님의 주의 심판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앞으로 현재의 고난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야 합니다. 죄로 인한 고난은 회개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견뎌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그 유익을 알게 하십니다(17). 둘째, 고난 중 선을 행해야 합니다(19). 그런 고난이라 해 쉬운 것이 아

닙니다. 물려오는 유혹 속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주께 우리 영혼을 맡겨야 합니다(19). 이 고난의 승리의 비결은 모든 짐을 주께 전적으로 맡기는 일이어야 합니다. 창조주는 주권자가 되시기에 영혼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큰 신앙의 도약의 기회로 삼으십시오.

수 장로가 밤을 지킴(벧전5:6-11)찬271장

사도에게 기원을 둔 장로직은 교회를 세우는데 중요한 기둥과 같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는 장로 위에 세워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 자신이 장로요 그리스도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는 교회장로에 관해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첫째, 자원으로 섬겨야 합니다. 부득이함으로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소명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 자원함은 하나님의 뜻인 게

시에 근거를 뒤야 합니다. 둘째, 본이 돼야 합니다. 바울의 가르침처럼 베드로도 본됨을 강조합니다(3). 주장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젊은 자들이 순복할 수 있도록 모든 방면에서 겸손과 순종으로 해야 합니다. 셋째, 영광의 면류관이 약속됐습니다. 목자장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약속된 상급을 바라보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열심을 갖게 합니다. 이 경주에 힘쓰십시오.

목 믿음에 굳게 설 이유(벧전5:12-14)찬343장

첫째, 마귀의 맹렬한 공격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때 우리는 믿음에 서야 합니다. 이것은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을 알고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참 믿음은 언제나 겸손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선진들이 받은 고난처럼 우리역시 그 시대를 통해 물려오는 내외부의 공격과 맞서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고난당하는 자

에게 승리를 약속했기 때문입니다(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온 세상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는 이 믿음 위에 사랑과 평강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금 신자의 지위(벧후1:1-7)찬344장

그리스도안의 신자는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첫째, 신자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과 경건의 원천이기에 그에게 소속될 때 그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1-4).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마귀 같은 나로 하나님 성품을 갖게 하신 그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할 뿐입니다. 둘째,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

입니다. 자라나는 과정이 필요한 지위입니다. 7덕이라고 말하는 믿음, 덕, 지식, 절제, 경건, 형제우애, 사랑을 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이처럼 절대없는 우리의 최상의 노력과 헌신을 요구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 부름 받았기에 마침내 의와 덕과 사랑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토 종말시대의 지혜(벧전4:7-11)찬375장

만물의 마지막을 의식하는 사도의 때는 우리가 사는 종말시대를 지칭합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에 관한 사도의 지혜를 들어봅시다. 첫째, 근신해야 합니다. 근신이란 깨어있는 생활 곧, 절제하는 생활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생활에서 옵니다. 우리의 육은 게으르고 방탕을 추구하기 때문에 항상 경계해야 할 제일의 요소입니다. 둘째,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종말의 고통 하는

때 극도의 이기주의로 치우치기 쉽습니다. 여기서 모든 약한 사색 즉,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 물질주의, 쾌락주의로 달려가기 쉬운 때 뜨거운 사랑이 이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합니다. 종말은 우리로 아무렇게나 대충 살게 하려는 유혹에 들어가게 합니다. 물질, 시간, 건강, 재능, 직장, 가정은 모두 우리의 청지기 분야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광우동 340-1(131-231)</p>	<p>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오월야예배: 오후 9:00 Tel: (031)877-3300-9, Fax: (031)877-8382 (우)110-831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0(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p>	<p>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새벽예배: 오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예배: 오전 5:00 새벽기도: 오전 6:30 Tel: (82)2-2648-318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p>	<p>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58-9988, Fax: 3927-1008 서울시 강북구 옥동2동 221-43 (142-073)</p>	<p>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p>
<p>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 (82)2-588-0191, Fax: (82)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1(404-270)</p>	<p>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8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번지</p>	<p>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p>	<p>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새벽기도: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랑구 화곡동 17길 29(삼일빌딩)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p>	<p>안양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후 8:30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 용인구 매곡동 146-7</p>
<p>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 경기도 김포시 신원동 415 www.yangkog.org</p>	<p>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 (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4동 294-1(1043-838)</p>	<p>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4)



염예선 박사
(풀러신학대학원 가정상담 및 한국가족학 교수)

V. 리더십: 리더로서의 목회자의 자세와 역할

11) 양떼들의 삶의 현상과 그들의 삶의 무게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목회자가 양떼들의 형편에 무지할 때 양들에게 버거운 짐을 주는 무리한 목회계획들을 세우게 되고 그들의 삶과 무관한 설교를 하게 된다.

12) 비판적인 성도들을 잘 다루어야 한다. 목회자는 목회현장에는 언제나 비판적인 성도가 있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비판을 일

발휘해야 한다. 아무리 주님을 따르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일지라도 죄인들이 모인 모든 공동체는 모두 불완전하고 깨어진 상태(imperfect and broken)에 있으므로 갈등이 찾아 올 수밖에 없음을 받아들이고 대처를 잘 해야 한다. 교회 내의 갈등은 감정과 사고와 영적인 면과 상황적인 면이 맞물린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Lee & Fredrickson, 2012).

갈등으로 인하여 일단 공동체가 파괴될 때 다시 치유되기까지는 5-10년이 걸린다(Weiser, 1994).

교회 정치꾼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Greg, 2001).

(5)평소에 교인들에게 목회자로서의 영성과 인품과 실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갈등 상황에서 목사는 자주 최종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있는데 평소에 교인들에게서 인정받지 못한 목회자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없다(신국원, 2012).

(6)많은 교회 갈등들이 목회자의 인품문제들로 인한 것이므로 목회자는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VI. 건강한 가정

1. 건강한 목회자 가정의 중요성

부부가 서로서로 삶에 그렇게 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직업은 대통령직과 목회직 밖에 세상에 없다. 그런데 대통령직의 경우 대통령의 아내의 영광을 받는데 목회자의 아내는 엄청난 분량의 교회 일을 하고도 목회자를 향한 성도들의 화살까지 받아야 한다. 목회자 편에서 볼 때도 아무리 제자로서의 인격과 소명의식과 목자의 사랑과 신학적 성숙성과 리더십이 잘 갖추어진 목회자라 하더라도 사모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부부관계가 나쁜면 성공적인 목회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런던과 와이즈만(1994)은 "목회자의 승패가 정말로 판가름나는 곳은 가정이다. 가정은 우리가 가장 먼저 성공을 해야 하는 경기가장이다"라고 말한다.

이성희(2012:192)는 "목회자의 부부관계는 목회의 생명과도 같다"고 말한다. Neuhaus(1992)는 가정에 대한 목회자의 강한 헌신은 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함을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풀러 신학교의 Cameron Lee 교수와 Fredrickson 교수(2012)는 목회자가 가정을 소홀히 함은 죄라고 주장한다.

목회자 가정의 건강이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결혼 생활은 Hays(1996)의 주장대로 자아의 희생과 자기부인과 상대방에 대한 복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생활을 통하여 제자로서의 삶을 훈련받기 때문이다.

2)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들 중 하나는 가정의 행복을 기초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각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3) 목회자 가정 안에 사랑이 풍성할 때 그 사랑은 교회 안으로 흘러 들어가 마련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정에서 친밀한 가족관계에서 오는

건강한 심리적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한 목회자가 목자의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4) 성경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일관성 있게 가정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기 때문이다.

5) 제자로서의 삶은 이웃사랑의 삶인데 Karl Barth(1961)의 주장과 같이 가장 일차적인 이웃은 가족이므로 목회자가 가족을 등한시 하는 경우 설사 아무리 목회를 잘하더라도 그런 목회자는 본이 되는 리더로 인정받기 힘들고 오히려 교인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세상의 비방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 가정의 건강과 신앙이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점은 디모데전서5:8(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말씀이나 벨전 3:7(아내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잘 말해준다.

7) 현대 교회의 많은 교인들은 건강한 가정상을 보고 배우고자 하므로 목회자가 신자들에게 건강한 가정생활의 역할 모델이 될 때 그 자체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사역이기 때문이다.

8) 목회자의 성격상 배우자의 직접적 간접적 후원과 동역이 없는 목회를 성공적으로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9) 누구에게나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배우자는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사랑으로 그 약점을 가장 잘 보완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10) 목회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할 때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상처가 많고, 크리스천으로서의 인격 개발이 안되어 성인이 되었을 때 사회와 교회의 짐이 된다. 엘리 선지자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잘 훈련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아들들을 올바르게 훈육하지 못했음에 대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았다(삼상 3:13). 이 말씀은 현 시대의 목회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가정의 건강은 건강한 삶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Gottman(2000)에 의하면 건강한 결혼생활을 하는 부부는 그렇지 않은 부부들에 비하여 평균수명이 8년 더 길고, 아이들이 더 잘 자라고, 남편들이 더 성공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빨리 회복된다고 한다.

이메일: yeasunkim@gmail.com
(계속)

캄보디아국제신학교 여성지도자 교육세미나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 주제...총 86명 참석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캄보디아국제신학교(ITCS) 여성지도자 교육세미나가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열렸다. "충성되고 선한 청지기"라는 주제 아래 오금욱 부원장, 김크리스 총무, 여운세 목사, 한주식 목사를 강사로 진행됐다.

참석자는 총 86명으로 재학생 50명과 신입생 36명이었으며 연령대도 다양했다. 18-30세가 10명, 31-40세가 18명, 41-50세가 32명, 51-60세가 24명이며 61세 이상도 2명 있었다.

지역도 다양했으며 각 지역별 참가자는 스바이 림 지역에서 39명으로 가장 많이 왔으며 이외에 캄봉 초남, 프레이 벵, 바탐방, 캄똥, 킨달, 프레이스비히어, 까엠펜, 반데이미은 쟈이, 꼬롱, 캄똥똥, 그라데 등의 지역에서 참석했다.

지도자 연수원생들은 시종일관 진지한 학습태도를 보였으며 세미나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않고 쌀, 야자열매, 키우던 닭을 싸고 캄보디아 간식을 만들어 오는 여성 지도자들에게서 자립적 신앙의 발전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오금욱 부원장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마친 캄보디아 지역 여성 지도자 교육 세미나"였으며 교수 4명 그리고 강사 1명의 가르침의 열정과 ITCS 학생들의 철저한 준비로 은혜가운데 마쳤다"고 전했다.

오 부원장은 "아직 신앙과 삶의 환경이 열악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열매들을 그리며 땀 흘리는 여러 곳곳



공부하는 캄보디아 여성지도자들

의 선교사님들에게 격려와 감사를 보낸다"며, 여성지도자 연수원에 관심과 기도를 부탁했다.

다음 세미나 계획(예정)은 2016년 1월 18일부터 21일까지 캄보디아국제신학교(ITCS)에서 강사 장미은 원장, 오금욱 부원장, 김크리스 총무, 여운세 목사, 한주식 목사, 김중식 목사를 강사로 "크리스천 생활"에 대해 진행된다.



연수원생 단체사진

▲연락처: (706)295-9212, grace8700@gmail.com

목회자는 갈등상황에서 교리문제 아니면 양보하고 No도 할 줄 알아야 목회승패는 가정에서 판가름... 목회자가정 건강 가정 롤 모델 돼야

단 귀를 열고 들은 후에 자신에게 유익한 비판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신의 삶에서 도움이 되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Stanley Jones(1978)는 자신의 영혼을 지켜주는 '무료 경비원'이라고 말한다.

어떤 목회자는 성도들의 교회를 위한 올바른 비판을 자신의 권위로 누르려고 하는데 이것은 물론 잘못된 태도이다. 좋은 리더가 되려면 항상 건전한 비판을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한편 교회를 옹호하고 사사건건 목회자를 반대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성도들이 있는데 이들을 치유의 대상으로 보고 이들의 행동들을 개인적 차원에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목회자는 이들의 문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가능하면 이들이 치유 받도록 도와야 하고, 이들이 자신이나 양떼들을 휘두르지 않도록 필요할 때는 정확하게 No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No를 말하지 않는 목사를 인품이 좋은 목사로 성도들은 때때로 착각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13) 갈등상황에서 올바른 리더십을

갈등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1)목회자는 먼저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그 갈등과 해결에 대한 성격적, 사회과학적 이해를 해야 한다. (2)갈등을 부인하지 말고 그때그때 다루어야 한다. 오늘 다루어지지 않은 갈등은 내일의 관계성의 암 덩어리로 자라날 수도 있다.

(3)바울이 우상에 바친 고기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매우 융통성을 발휘했으나 이단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가 없었듯이, 목회자 자신이 연루된 갈등상황에 부딪혔을 때 목회자는 먼저 그 갈등이 자신이 양보할 수 있는 종류의 갈등인지, 아니면 기독교 교리와 직결된 양보할 수 없는 갈등인지 구분해야 한다. 즉 목회자는 자신으로 인하여 상처받거나 시험에 드는 성도가 없도록 가능한 한 많은 양보를 해야 하지만, 동시에 신앙의 근본을 흔드는 핵심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된다.

(4)갈등에 잘 대처하기 위하여 목회자는 교회도 권력집단적인 면이 있고 정치적인 면이 있음을 부인하지 말고, 교회내의 sub-group들의 정치와 역동성들을 읽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지 못할 때 순진한 목회자들은

초청의 말씀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지난 40년 동안 이병희 목사의 사모로서 이민목회 사역을 내조하였습니다. 부족하지만 많은 경험들을 모아 금년 1월 30일 '최고의 에제크가 되다' 를 출판했습니다. 이에 40년 회고 및 출판감사의 밤을 가지면서 사모님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식사와 책을 증정하는 의미있는 시간도 갖고자 합니다. 부디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여부를 준비위원회에 알려 주십시오. 이희숙 목사

- 대상: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 사모님
- 인원: 30명(장소관계로 접수 예약된 수서로 마감)

- ▶ 일시: 2015년 9월 26일(토) 오후 6시
- ▶ 장소: 가든 스위트 호텔 (Garden Suite Hotel)
681 South Western Avenue, Los Angeles CA 90005
- ▶ 주관: 세계 복음선교교회



예약 문의처

Tel: (310)709-7662 Dr. Daniel Bkh
Email: graceyeon1310@hotmail.com